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7호 【루계 제24815호】 주체104(2015)년 2월 6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 이 물음에 떳떳이 대답하자

우리 조국이 비약의 나래를 펴고 전진의 보폭을 크게 내짚고있다.

새해 정초부터 원대한 포부와 무한대한 정력으로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헌신의 발걸음따라 천만군민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맹렬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조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지금 우리의 모든 공민들은 이 엄숙한 물음앞에 서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오늘날 애국과 우국, 실천가와 말공부쟁이를 가르는 척도로 되고있다.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라는 《애국가》를 부르며 자라난 이 나라의 공민이라면 누구나 오늘의 시대적물음, 조국의 부름앞에 떳떳이 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조국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조국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매 가정의 행복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조국에 이바지한것이 없는 사람은 값높은 인생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어머니조국의 참다운 아들딸이라고 말할수 없다.

조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이 물음은 오늘날 더욱더 중대하고도 절박한 의미를 안고 부각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강성국가》, 《백두산대국》이라는 말을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스스럼없이 하고있다. 여기에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세기적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열렬한 공감이 깃들어있으며 하루빨리 부강한 나라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는 절절한 념원이 어려있다.

강성국가, 이것은 그 누구의 선사품이 아니며 세월의 흐름이 가져다주는 우연적산물은 더욱 아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 남녀로소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전인민적인 애국사업이 바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이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이 나라의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자기를 세워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 세대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공민적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시간표가 드티게 된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그 대가를 치르어야 할것이다. 모든 공민들이 피땀을 바친것만큼, 지혜와 열정을 기울인것만큼 앞당겨지는것이 우리의 미래이며 행복이다.

오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속에서 전진하고있다. 우리가 잘살고 앞서나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봉쇄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미제의 강권과 전횡으로 국제무대에서 천만부당한 《인권결의》까지 조작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

현실은 우리의 모든 공민들이 조국수호와 조국번영을 위한 투쟁에 어떻게 이바지하고있는가를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 사회주의의 운명과 전도가 우리 인민자신의 투쟁에 달려있는 지금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안일해이를 추구하고 제살궁리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찌 이 나라의 공민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 이것은 결코 기발처럼 들고나가는 구호가 아니라 실생활에 구현해야 할 량심의 구호, 행동의 구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줌 거름이 되여서라도 이 땅을 기름지게 살찌우고 한줄기 빛이 되여서라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보탬을 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서야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이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다. 애국으로 뭉쳐진 힘은 조국결사수호의 강위력한 무기이며 모든 승리와 기적창조의 근본원천이다.

우리 인민은 애국심이 남달리 강한 인민이며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애국의 전통이 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이것이 항일의 나날로부터 굳건히 이어져온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정신이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따라 힘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였다.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과 모든것이 파괴되고 벽돌 한장 성한것 없던 전후복구건설,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건설의 전 로정은 참다운 애국으로 빛나는 불멸의 영웅서사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서한을 애국의 기치로 틀어쥐고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이겨냈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도 마련해놓았다. 조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이 물음에 심장으로 화답해온 혁명선렬들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애국투쟁이 있어 우리가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이다.

애국의 대가 꼿꼿이 이어지는 나라가 강하고 흥하는 나라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의 애국전통은 더욱더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나선 인민군장병들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각지의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의 불같은 애국적헌신성은 우리 조국이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변함없는 애국충정으로 인생길을 수놓아온 선천군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강동명동무와 근 20년세월 가족과 함께 130여정보의 푸른 숲을 가꾼 덕성군의 전성관로인과 같은 애국자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올해는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이 더 힘차게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철석같은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엄높으며 은혜로운 어머니 우리 조국이 자기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애국적진군에로 부르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누구나 조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을 순간순간 심장깊이 새기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 조국이 최후승리의 령마루에로 돌진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애국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생의 수치로 될것이다.

애국은 조국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조국, 시대와 력사의 부름에 말로써가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며 실천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참다운 애국자로 키워주는 정신적자양분이며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할 애국의 본보기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앞에 설 때 먼저 생각하게 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애국의 세계이다. 어버이장군님과 같이 한평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같이 사신 절세의 애국자를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인민이 자리잡고있었으며 장군님께 있어서 조국에 대한 헌신은 더없는 락이였고 보람이였다. 조국의 수호와 강성번영을 위하여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최전연초소에도 서슴없이 나가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초인간적인 의지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을 닮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조국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는 길이 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귀감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식대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한밤이 지새도록 꺼질줄 모르던 당중앙창가의 불빛과 험준한 오성산의 칼벼랑길, 선군혁명의 상징인 눈물겨운 단벌솜옷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을 위하여 온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는 사람이 진짜배기애국자이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과 같이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뿌리가 되고 기수가 되여야 한다.

매일매일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무조건 수행하는 결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공민들이 지켜선 초소는 조국수호와 조국번영의 중요전구들이다. 이 모든 초소와 일터들에서 맡겨진 계획을 수행하고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야 강성국가건설전반이 활력에 넘쳐 전진할수 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문강순동무와 같이 한해에 5년분 계획을 수행하는 비상한 애국열의가 온 나라에 차넘칠 때 우리 조국은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게 될것이다.

매일매일 《오늘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할수 있는 사람만이 조국을 위하여 자기를 바쳤다고 자부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서 준 과업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어김없이 집행하는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자기 사업, 자기가 맡은 일을 당과 조국,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을 지니고 높은 실적을 내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한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고 벽돌 한장을 쌓아도 조국에 바치는 자기의 깨끗한 량심이 비끼게 하여야 한다.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하지 않는 강한 일욕심, 분초를 쪼개가며 헌신분투하는 불같은 열정이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꽉 차넘쳐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누구나 계획완수자대렬에 떳떳이 들어서야 한다.

패배주의, 보신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시련과 난관앞에 겁을 먹거나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려는 적극성과 용감성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다. 만난을 파감히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을 지닌 사람만이 뚜렷한 애국의 자욱을 새길수 있다. 오늘날 우리 당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살며 일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연길폭탄의 력사와 천리마시대의 서사시를 배우며 자란 혁명적인민답게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백절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시련이 겹쌓인다고 하여 우는소리를 하거나 남의 힘을 바라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생산과 건설, 현대화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가며 대중적영웅주의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특히 일군들속에서 사무실에 앉아 조건타발이나 하는 현상, 책임을 두려워하며 사업을 혁신적으로 박력있게 전개하지 못하는 현상, 구호나 웨치며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대지 않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유익한 일들을 더 많이 찾아하여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애국의 일감들이 수없이 많다. 국방력강화에 진심을 바쳐가는 원군도 애국이고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야간지원돌격대활동을 벌리는것도 애국이며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를 아름답게 꾸려가는것도 애국이다. 한방울의 물, 한W의 전기도 극력 아껴쓰고 비바람에 넘어진 애솔포기 한그루도 제손으로 세워주며 길거리에 흩날리는 한오래기의 오물도 무심히 스치지 않는것도 다 애국심의 발현이다.

참된 애국자에게는 네일내일, 크고작은 일이 따로 있을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모든것을 애국의 눈으로 보고 대하여야 한다. 혁명선렬들의 넋과 피땀이 스며있는 이 땅의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고 세상에 없는 사회주의재부로 빛내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불굴의 시인으로 자라난 특류영예군인 조광원동무와 같이 전진하는 내 조국의 숨결에 맥동을 더해주는 좋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애국적소행들을 널리 일반화하여 선군시대 공로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게 하여야 한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숭고한 인생관,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무한한 헌신성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가사보다 국사를 귀중히 여기는 애국헌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가정은 애국심과 혁명성을 낳는 샘이며 시발점이다. 사회의 세포인 모든 가정들이 애국자가정이 되여야 온 나라가 애국으로 들끓고 우리 조국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우리는 청춘의 사랑도, 가정의 행복도 나라찾는 싸움의 길에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자기 가정의 생활상고충보다도 공장일을 먼저 생각하던 천리마시대인간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거울로 삼고 언제나 애국의 한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가족성원 누구나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수 있게 하루하루를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수놓아감으로써 애국이 모든 가정의 가풍으로 된 우리 사회의 대풍모가 높이 떨쳐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식들의 성장에 늘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조국보위초소에서 청춘을 빛내이고 강성국가건설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당사업이나 근로단체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이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마땅히 사람들의 애국심을 키우고 발양시키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가 우리 인민의 애국의 열정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 대한 열렬한 애착심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혁명적락관주의를 체질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복구전투를 비롯한 애국사업에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나라일이야 어떻게 되든 개인의 안일과 리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절대로 싹트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오늘의 애국적진군에서 기수가 되고 전위투사가 되도록 잘 이끌어주고 떠밀어주어야 한다.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주시고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혁명선렬들이 우리 세대의 투쟁을 지켜보고있다.

조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모두다 이 물음에 심장으로 대답하며 사랑하는 어머니조국,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총공격전의 불길높이 계속 힘차게 전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

각지 4.15기술혁신돌격대들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이 기술혁명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최근년간 각지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술혁신목표를 높이 세우고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술혁신돌격대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이 기술혁명수행의 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농업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부문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적인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일군들부터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서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농장의 돌격대원들은 품종선택과 종자처리, 모내기, 비료주기, 물관리 등 주요영농공정들에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여 논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의 돌격대원들은 알곡 대 알곡 두벌농사를 위한 재배기술, 대용농약에 의한 병해충구제기술 등 수십건의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실현하였으며 다수확품종들과 새 품종들을 적극 도입하였다.

인민생활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경공업부문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문천식료공장의 돌격대원들은 수입에 의존하던 과자생산용쇠그물벨트를 자체로 생산하여 많은 외화를 절약하고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기본생산공정들에 대한 종합감시조종체계의 확립 등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공장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대동강식료공장의 돌격대원들은 콤퓨터에 의한 생산공정의 감시 및 종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설비와 생산공정,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한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였다.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에서는 젖산발효에 의한 장절임생산방법, 양념액에 의한 장절임생산방법 등 여러가지 장절임생산방법을 비롯하여 많은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생산능력을 훨씬 높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우시장공장의 돌격대원들은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수십건의 기술혁신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전력공업부문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도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력생산과 리용, 그 절약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서두수발전소의 돌격대원들은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각 취수구들의 류입량조건을 고려하여 물량자료를 보다 과학적으로 신속정확히 계산하며 예견되는 저수지수위와 운영곡선에 맞추어 발전소운영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물조절과학화지원프로그람을 개발도입함으로써 가물철의 전기생산량과 물 1당 전기생산량을 지난 시기보다 늘이였다.

평성시송배전소의 돌격대원들은 전력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전력공급과 운영을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밖에 은률광산, 만경대애국늪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돌격대원들도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각지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결사관철의 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강철웅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 단천마그네샤공장에서 —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사회주의협동벌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저류지, 보막이, 우물, 굴포 등 수많은 물확보시설공사 진행

뜻깊은 광명성절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같은 일념안고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물확보전투를 힘있게 벌려 씨뿌리기를 비롯한 봄철영농전투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월말현재 수십개의 저수지가 새로 건설되였으며 1만 6 000여개의 우물과 3 500여개의 굴포, 보막이와 저류지, 물주머니, 졸짱 등 수많은 물확보시설공사가 완공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물은 농업의 생명수라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농업성과 각 도, 시, 군일군들은 물확보시설공사를 봄철영농전투전에 끝내기 위한 작전을 대담하게 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특히 보조수원공사를 다그쳐 씨뿌리기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다.

황해남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물확보전투의 앞장에 섰다.

도와 시, 군책임일군들은 저류지, 우물, 굴포 등 물확보시설공사를 농사차비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여기에 로력과 자재를 총집중하면서 거름생산도 동시에 힘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철석의 각오를 가지고 협동농장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삼천군 일군들은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저수지확장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끝낼 대담한 목표밑에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맡은 작업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군적으로 4개의 저수지확장공사와 30여개의 저류지, 수백개의 우물과 굴포파기 등 670여개소의 물확보시설공사를 완공하였다.

연안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총공격전을 벌릴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안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7개소의 지하저수지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청단군에서는 저수지의 물이 부족한 조건에 맞게 여러 하천들의 80여개소에 보막이를 하였으며 태탄군, 벽성군, 봉천군에서도 올해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목표밑에 물확보시설공사를 다그치였다. 안악군, 재령군, 신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대동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물길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어 1만여정보의 논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물확보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대동군에서는 첫 전투기간에 군민협동작전으로 새 물길을 건설한데 이어 근 200개의 우물파기를 진행하였으며 문덕군에서는 저류지와 물주머니공사를 내밀어 많은 물을 확보할수 있게 해놓았다. 숙천군, 평원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일 열의안고 떨쳐나 저류지, 보막이, 물주머니공사를 질적으로 해제끼였다. 결과 도적으로 2000여㎞의 물길을 건설및 보수하고 1만 5 000여개의 우물파기를 진행하였다.

황해북도 일군들이 총공격전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이들은 지난해농사에서 찾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물확보전투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사리원시의 협동농장들에서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풍년농사를 지을수 있다는 배심안고 떨쳐나 대동강물을 포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십㎞의 물길공사를 끝내였다. 군의 곳곳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쌀로써 빛내이기 위해 모든 힘을 물확보전투에 집중함으로써 황주군에서는 우물, 굴포, 졸짱, 지하저수지, 보막이공사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연탄군에서도 200여개의 우물을 파놓았다.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도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씨뿌리기를 보조수원의 물로 보장하기 위해 수천개의 우물을 팔 계획을 세우고 시, 군들에서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시, 군협동농장일군들은 포전들을 돌아보면서 우물을 팔 자리를 선정하고 작업반과 분조들에서 우물파기를 집중적으로 해제끼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홍원, 덕성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물이 넉넉해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는 자각안고 우물파기에 힘을 집중하여 도적으로 제일 앞서나가고있으며 정평군, 함주군, 함흥시가 그뒤를 바싹 따라섰다.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분발해나선 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도적으로 2200여개의 우물이 포전머리마다에 생겨났다.

자강도, 평양시, 남포시, 강원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자신만만한 배심으로 저류지, 보막이, 굴포, 우물, 졸짱 등 물확보시설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였다.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올데 대한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나가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충정에 떠받들려 물확보전투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규무력건설의 나날에(2)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강군으로

우리는 지금 김일성광장에 서 있다.

정규적혁명무력의 탄생을 알리던 력사의 2월을 맞고보니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거행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되새겨진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를 정중히 앞세우고 보무당당히 전진하는 열병대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의 자랑찬 영웅서사시가 수놓아져있는 군기들을 펄펄 날리며 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열병대오마다에는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 제일결사대의 기상이 용솟음쳤다.

그 대오의 선두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종대가 지축을 울리였다.

안도의 밀림속에서 자기의 탄생을 알렸던 첫 무장대오,

그 무장대오가 오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력한 최정예의 전투대오로 자라난것이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 거목으로 자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항일의 고귀한 전통을 자기의 력사적뿌리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군대입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되새길수록 인민군대를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숭엄히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무장된 혁명적정규군대를 건설하는것을 우리 당의 인민무력건설방침으로 제시하시고 군인들이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투쟁경험과 투쟁업적을 계승하며 항일선렬들의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정규무력건설의 경험이 없고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무장한 군사지휘관도 얼마 없었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정규군건설에서 무엇보다도 긴요한 문제로 나선것은 지휘관문제를 빨리 해결하는것이였다.

당시 다른 나라들에서의 로동계급의 정규무력건설경험을 보면 지난날의 군사전문가들을 리용하면서 새로운 군사지휘관들을 육성하는것과 큰 나라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체의 정규적인 민족군대를 가지고있지 못했던것만큼 리용할만 한 군사전문가들도 없었고 다른 나라에 의거할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항일혁명투사들이 다른 사업에 앞서 정규무력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주체35(1946)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방당, 정권기관들에서 사업하던 항일혁명투사들을 소환하여 중앙보안간부학교 정치부교장, 교무부장으로 파견하여주시고 북조선인민위원회안에 민족보위국을 내오실 때에도 국장으로 항일혁명투사를 임명하시였다.

이것은 정규무력건설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지휘관문제를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면서도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항일의 영광스러운 전통의 빛나는 계승자로 될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우리의 정규무력을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군사교육사업에도 어리여있다.

당시 군사교육기관에 기여든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군사교육에서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 하였다.

군사교육에서 나타나는 실태를 통찰하시고 여러차례나 평양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지난날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무장투쟁에서 적은 인원과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 현대적무기와 최신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군을 때려부신 고귀한 경험이 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귀중한 밑천이다, 동무들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이 귀중한 경험들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사교육을 철저히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인들이 가지고 훈련하는 총을 보시면서도 항일혁명투사들의 피가 어린 총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항일의 넋을 심어주시였다.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력사의 그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은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군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는 민주조선의 정규군대로서 비록 오늘 창건되기는 하지만 실지로는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경험,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항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완성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정규군건설위업의 빛나는 실현을 알리는 력사적 선언이였다.

진정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으로서의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할수 있었다.

전후 당내에 잠입하였던 반당종파분자들이 조선인민군의 혁명적성격을 변질시키려고 책동할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의 죄행을 준렬히 폭로하시며 인민군대의 혁명적성격을 다시금 명확히 천명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백전백승의 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인민군대는 오직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항일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주체의 군건설위업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강령적지침으로, 우리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철칙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사상과 위업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다.

장장 반세기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군건설령도사는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과 그 위업을 무적의 군력으로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군으로 키워오신 불멸의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돌이켜보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였던가.

혁명전통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전통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천명하시고 일찍부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고결한 충정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마련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덜지도 더하지도 않고 100% 계승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군에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당의 위업을 굳건히 받들어가는 강유력한 혁명의 주력군으로 자라났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가슴마다에 새겨주시려 지난해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성원들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잊지 못할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련합부대지휘관들이 백두산의 눈보라맛을 보며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강행군도 하고 야외에서 숙식도 하도록 하시여 그들이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혁명의 시원, 우리 혁명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뼈에 새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혁명무력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오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영원한 신념의 뿌리로 간직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할것이다.

강 원 남

우리 군대의 군복, 군기에 깃든 사연

우리 인민군대의 군복과 군기, 바로 여기에도 백두산장군들께서 바치신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음을 선군으로 자랑높은 우리 조국은 오늘도 전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력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수령님의 혁명업적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한 업적이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선군정치를 펴나가는데서 튼튼한 토대로,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습니다.》

예로부터 군복과 군기는 군대의 면모를 상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되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군대의 군복과 군기는 어떻게 마련되였던가.

평양학원을 창설하시던 그때에 벌써 우리 인민군대의 군복은 어떤 색갈로 하며 어떤 형식으로 만들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와 관련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님,

주체35(1946)년 9월 중순 어느날 몇몇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빨리 우리 군대의 군복을 제정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군복을 만든 경험에 기초하여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 군사적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군복형식을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군대는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 혁명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의 군복은 인민들에게 친근감을 줄수 있게 소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군대 군복의 형식을 규정하는데서 근본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이 다 포괄되여있는 강령적인 지침이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군복도안은 이렇게 어버이수령님의 지도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과 존엄, 자랑찬 승리의 행로가 력력한 영광의 군기에는 또 어떤 감동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사람들은 다 모를것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정규무력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어느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지고오신 여러 군기도안들을 놓고 사색을 거듭하시였다. 그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김정숙동지께서는 군기도안을 밤늦도록 토의하시였다. 그 뜻깊은 자리에는 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계시였다.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밤에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보아주신 군기도안이 바로 조선인민군의 영광으로 나붓기는 군기로 태여났던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대오앞에 최고사령관기와 함께 나붓기는 영광의 군기, 오늘도 이 성스러운 군기는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전하여준다.

손수 군기에 정성담아 한뜸한뜸 수를 놓으시며 군기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부대가 걸어온 영광스러운 전투적행로를 상징하는 기발이며 그 부대의 존재를 의미하는 생명이다, 세상에는 군대도 많고 군기도 많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대의 군기처럼 깊은 뜻이 담겨진 군기는 많지 못할것이다, 우리 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로 될것이며 영원히 백전백승하는 혁명무력으로 세계를 진감시킬것이라고 확언하시던 김정숙동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듯 싶다.

백두산녀장군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우리 인민군대의 군기들은 정규적혁명무력의 탄생을 알린 그때로부터 펄럭이는 기폭마다에 자랑찬 승리만을 수놓아왔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정규적면모를 뚜렷이 상징하는 군복과 군기,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바로 이 군복과 군기에도 백전백승만을 떨치는 조선인민군의 오늘을 위하여, 선군의 위력속에 더욱 부강해질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온넋을 바치신 백두산장군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어려있음을.

본사기자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평천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병사들의 정든 집

중대는 나의 정든 집,

우리 병사들의 애착과 긍지가 함뿍 어려있는 정다운 그 부름은 또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들을 전하여주는것인가.

음미해볼수록 총잡은 병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은정이 뜨겁게 새겨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험한 칼벼랑길과 파도사나운 바다길에도 주저없이 나서시며 이 나라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들을 끝없이 찾고 찾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 끝없이 이어가신 선군혁명령도의 그 길에서 사랑을 담아 병사들의 정든 집이라고 불러주신 초소들은 그 얼마였던가.

총을 잡은 병사들은 고향집을 멀리 떠나 생활하게 된다. 하기에 자기들이 생활하는 초소에 대한 병사들의 감정은 류다르다.

모든 병사들이 청춘의 보람과 희망에 넘쳐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값높이 이어가게 하자면 자기 초소를 정든 고향집으로 여기도록 하여야 한다.

언제나 이런 생각을 안으셨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병사들의 초소를 찾으실 때마다 교양실, 침실, 식당, 세목장, 부식물창고, 야외휴식장 등을 돌아보시며 우리 군인들에게 정든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것 아니랴.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이 중대에서처럼 사상교양사업과 병영관리를 잘하고 물질생활수준이 높으면 중대는 나의 집 정든 나의 집이라고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군인들이 중대에 정을 붙이고 군사복무를 잘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음성이 오늘도 병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잊을수 없는 그날 동무들은 정말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하시며 환하신 웃음을 지으시던 어버이장군님,

모든 중대를 화목하고 따뜻한 정서가 넘치며 물질생활이 윤택하여 떨어져선 못살 정든 집으로 만드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혁명의 총대를 틀어잡은 군인들을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전우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였기에 작전을 구상하시여도, 사업을 하나 전개하시여도 병사들을 먼저 생각하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을 잊을수 없다.

그 다심하신 은정에 의해 중대는 정든 집이라는 부름이 사랑의 대명사로 전군에 울려퍼져 선군시대의 유정한 시대어로 되였다.

조국방선 그 어디에서나 중대는 병사들의 정든 집, 보금자리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력있는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만형도 있고 맏누이도 있는 정다운 집단에서 혁명적동지애를 체질화하고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칠 결사의 각오를 더욱 깊이 간직해가는 우리 병사들의 보람과 영예는 끝이 없다.

정든 집, 이 부름은 새기여준다.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대로 인민군대의 모든 초소들이 병사들의 정든 집으로 될 때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력은 더욱 백배해질것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굳건할것이라고.

본사기자 림정호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올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

당창건 일흔돐을 높은 알곡증산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열의가 비상히 앙양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 1돐을 맞이하고있다.

주체103(2014)년 2월 6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길을 밝힌 강령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농촌테제는 우리 당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 위대한 기치이라는것을 강조하시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지난 1년간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로작에 제시된 고귀한 지침을 실천투쟁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올수 있는 좋은 성과와 경험들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농업은 인간의 생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 농업을 발전시켜야 끊임없이 높아지는 사람들의 물질문화적요구도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국력도 굳건히 다질수 있다.

지금 세계적인 식량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심히 위협하고있다. 이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는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는 한편 토지의 리용률을 높이고 선진영농기술들을 적극 개발도입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현실은 농업문제는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여있는 사활적인 문제, 국가의 발전과 관련되는 정치적문제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역적특성과 세계발전추세에 맞게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고있다. 세포지구가 대규모축산기지로 훌륭히 꾸려지고있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축산기지와 온실, 버섯생산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가고있으며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쌀독이 넘쳐나야 인민생활이 향상된다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새해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가까운 앞날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실천투쟁으로 받들어나가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있기에 협동벌마다에는 반드시 풍요한 가을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농촌문제해결의 불멸의 대강이 있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농법을 보다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선군시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농업문제해결의 새로운 활로가 열려졌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이였다. 험한 포전길을 걷고걸으시며 농사문제에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분이 어버이수령님이시며 언제나 농업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농촌에서 3대혁명이 힘차게 벌어져 농업근로자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자라나고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땅답게 일신되게 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키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뿌리신 씨앗들은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분조관리제는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 우월한 관리방법으로서 실천에서 그 우월성이 나날이 확증되고있다. 지난해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한 단위들의 성과의 비결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바로 실시하고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한데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 바로 여기에 농촌문제해결과 농업생산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높은 알곡증산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나갈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이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이다.

오늘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경제제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적들의 비렬한 책동은 우리가 식량난을 겪게 하여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농업전선에서의 혁신의 불길이자 강성국가건설의 거세찬 활력이며 사회주의전진의 힘찬 보폭이다.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생활로 체험하여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한목숨바쳐 지켜갈 굳은 각오를 가질수 있으며 누구나 강성국가건설투쟁에 용약 뛰여들어 영웅적위훈을 떨칠수 있다.

우리 조국은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마음먹은대로 배심있게 해나갈수 있다. 쌀이자 국력이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병이라는 자각을 심장깊이 새기고 알곡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은 만방에 더욱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농업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힘을 넣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다.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주로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것과 같은 생명유기체를 다루는 분야이다. 때문에 농업생산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농업부문에서는 낡은 경험을 고집하면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경향을 없애고 과학연구성과들을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현대농사는 과학농사이다. 우리 나라에서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비료를 적게 요구하고 여러가지 피해에 잘 견디는 품종을 얻어내자고 해도 그렇고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 맞게 농작물생산을 늘이자고 하여도 농업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데서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해결도,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할 과업수행도 과학기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 례년에 없는 왕가물속에서도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최대로 높인 단위들의 경험이 보여주는것처럼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합리적인 영농방법을 제때에 받아들일 때 농업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지금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농업생산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우리 당의 인재강국화실현의 귀중한 토대로 되고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과학농사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영농기술을 배우고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루어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고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이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사상들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할것이다.

김 성 룡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선전

곽산군 관상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특히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부강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독보와 해설담화, 강연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성교양을 정상화하도록 하고있다.

모든 사업에서 사상을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자각하고 일군들부터 학습강사, 선동원이 되여 위대성선전에 앞장서고있다.

얼마전 영농작업으로 들끓는 현장에 나간 리당일군은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를 가지고 해설모임을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모임에서 그는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쌀로써 받들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지금 리안의 모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은 알곡증산으로 받들어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로농통신원 홍철환

주체적인 농업발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신 1돐을 맞으며

불멸의 대강이 밝혀준 다수확의 지름길을 따라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받아안은 때로부터 한해가 흘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 농법이며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우월한 과학농법, 집약농법입니다.》

주체적인 농업발전의 지름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한해동안 알곡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을 담보하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하기에 이들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의 농사는 락관적이라고 하면서 신심에 넘쳐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승산이 확고한 다수확품종배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종자문제해결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배치를 잘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저 멀리 북부고산지대로부터 서해벌방, 중간, 산간지대의 그 어느 농촌에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이 문제를 틀어쥐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을 례들어보자.

농장에서는 지난해에 이 지대의 생육적산온도와 토양의 특성, 다수확품종벼종자들의 생육지표 등을 따져보고 대부분의 논면적에 받아들이였다. 결과 전해에 비하여 정보당 소출을 2t이상 증수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정보당 10t이상 나는 다수확논벼품종만 놓고 보더라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양시, 황해북도, 평안북도에서는 80%이상, 전국적으로는 70%이상의 논면적에 도입함으로써 정보당 수백kg의 알곡증수효과를 보았다.

박천군 덕삼, 률곡협동농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농장들에서는 물보장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에 가물견딜성이 강한 다수확품종들을 배치하여 알곡소출을 높이였다. 청단군 흥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비가 내려야 모내기를 할수 있다던 천수답에 밭벼를 재배하여 왕가물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높은 수확을 거두었다. 단천시 평산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랭해가 심한 동해안지대에서는 랭해에 견디는 힘이 센 품종들을, 태풍피해를 받을수 있는 지대들에는 키가 작고 이삭이 낮게 달리며 뿌리썩음병견딜성이 센 강냉이품종들과 고구마와 같은 작물들을 배치하여 수확고를 높이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다수확품종배치체계가 더욱 정연하게 세워졌다.

그뿐이 아니다. 전국의 농촌들에서는 과학농사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종자피복제들을 도입하여 알곡증산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대동군 고산협동농장에서는 다수확품종의 강냉이종자들을 피복처리하여 심었다. 그리하여 영양단지만들기와 모기르기, 모옮기기에 드는 로력을 절약하고 박막, 나래를 비롯한 영농자재를 쓰지 않으면서도 정보당 수확고를 1t이상 증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자의 생활력을 높이고 수명을 늘일수 있는 현대적인 종자보관고, 모든 다수확품종의 종자들을 정선, 선별, 피복처리까지 종합적으로 하여 협동농장들에 공급할수 있는 종자가공공장건설…

참으로 지난 한해의 농업실천과정을 통하여 승산이 더욱 확고해진 다수확품종배치체계는 알곡증산의 튼튼한 토대로 되였다.

증산의 만능열쇠는 앞선 영농방법

농업부문에서 종자와 로력, 영농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영농방법들을 널리 일반화하라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서한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이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큰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였다.

배천군만이 아니라 강동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지난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한 비결은 영양단지모를 받아들여 적은 물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데 있다.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는 왕가물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 맞게 간단물대기방법을 받아들여 최고수확을 냈다.

그뿐이 아니다. 평안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지 농촌들에서는 마른논써레치기, 이랑재배, 두둑재배를 비롯한 토양관리방법, 많은 종자와 영농자재를 절약하면서 튼튼한 벼모를 키워내는 실리있는 벼모기르기방법, 포화수식 및 간단물대기, 중간물말리기 등 물절약형의 논물관리방법들을 도입하여 혹심한 왕가물을 이겨냈다.

구장군, 판교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의 협동농장들에서 받아들인 개꼬리뽑아주기, 꽃가루묻혀주기, 이삭목찌르기, 오사리벗겨주기방법들도 불리한 날씨조건에서 수정률을 높이고 이삭당 알수와 천알무게를 늘여 강냉이다수확을 낼수 있는 앞선 영농방법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내기 위해 비료주기를 과학화한 실례를 들어보자.

북부랭한지대인 온성군의 일부 협동농장들의 포전에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7t이상 내여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비료주기의 과학화를 실현한데 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기상조건과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포전, 필지별로 비료주기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영농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적은 비료로 소출을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후조건이 불리한 회령시의 협동농장들에서도 강냉이이삭비료주기방법을 개선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전해보다 600kg이상 증수함으로써 비료주기의 과학화는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 확고한 담보라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전국의 농촌들에서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없어졌다. 린, 카리, 규소 등 여러가지 비료를 구색이 맞게 주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안변군, 은파군을 비롯한 강원도, 황해북도 등 전국의 농촌들에서는 후민산염,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고농도린세균비료, 티오균비료,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료들도 질적으로 만들어 논밭에 주어 랭해와 가물을 극복하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킬 때 왕가물을 비롯한 그 어떤 불리한 조건도 이겨낼수 있다는것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한해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심장에 새긴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농사지으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풍작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불멸의 대강이 밝혀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계속 혁신하고있다.

본사기자 황 연 옥

은을 낸 포전담당책임제

지난해농사를 잘 지은 협동농장들의 경험을 보면 분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잘 짜고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분조관리제의 요구대로 농장원들에게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명백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여 농장원들모두가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열의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룡천군 양서협동농장만 보아도 그렇다.

지난해 이 농장에서는 그 전해보다 알곡을 정보당 평균 1t이상 더 생산하였다.

농장에서는 분조들에 조를 구성하기에 앞서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수백개의 조를 조직하였다. 이때 모든 분조들에서 한 조의 규모를 평균 4～5명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도 조에 소속되였다.

조의 규모를 이렇게 정하니 농업근로자들모두가 자기가 담당한 포전의 실태를 지난 시기보다 더 잘 알게 되였다. 제4작업반 4분조만 보더라도 농업근로자들이 지력상태와 특성을 알고 그에 맞게 농사를 지었다.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조들에 알곡생산계획을 바로 주는것이였다.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의 경험을 보아도 알수 있다. 농장에서는 모든 조들에 포전들의 등급과 농사조건에 맞게 알곡생산계획을 주었다. 특히 모든 분조들에서 평균주의를 없애고 포전위치, 작업조건, 지력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데 기초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준비정도와 체질, 실무수준, 능력에 맞게 포전을 분담하고 알곡생산계획을 주었다.

이 농장들만이 아니다.

연탄군 수봉, 평원군 석교, 영광군 관수, 화대군 읍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농사를 잘 지은 농장들은 모두 일군들이 사색을 깊이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고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한 농장들이다.

하기에 오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실시야말로 땅의 주인, 알곡생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높여주는 우리 식의 경영관리방법이라고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적은 원가로 수익을 높인 축산물생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면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있어 좋고 집짐승배설물로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어 좋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 축산을 활성화하고 알곡생산을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각지 농장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을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보고 방도를 찾아 실천해나갔다. 그것이 바로 적은 원가로 축산물생산을 늘이면서도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는데 중심을 둔 집짐승기르기였다.

우선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에서 좋은 경험이 창조되였다.

세포군 귀락축산전문협동농장의 경험을 놓고보자. 농장의 면양작업반은 산골지대에 있고 풀도 많아 방목할수 있는 조건이 좋았다.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장은 이런 조건을 놓고 두가지 문제를 타산하였다.

우선 자연풀판만 가지고 얼마든지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배집이 큰 풀먹는집짐승들은 매일 오랜 시간 많은 풀을 먹기때문에 배설물이 많아 거름생산도 늘일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작업반에서는 양과 염소를 대대적으로 기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근기있게 내밀었다.

결과 몇해전부터 해마다 1 000마리의 양, 염소를 길러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였다.

지난해에는 수백마리의 새끼들을 다른 단위들에 보내주었다. 또한 1 000여t의 배설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냄으로써 해발고가 500m이상인 지대에서 정보당 최고 8t의 강냉이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산군 송촌농장을 비롯하여 많은 농장들에서 산을 낀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염소를 대대적으로 길러 고기와 젖, 거름을 많이 생산하였다.

축산물생산에 첨가제를 리용하여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임으로써 품을 적게 들이면서 질좋은 고기, 알생산을 늘이고 있는것도 혁신적이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집짐승들의 종류와 축산물의 생산목적에 따라 첨가제를 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 과정에 종전보다 거친먹이를 많이 쓰면서도 먹이의 질을 높이고 사양관리로력과 먹이가공에 드는 품을 푹 줄이였다. 또한 집짐승들의 소화흡수률과 먹성, 생리적활성을 높여주었다. 결과 돼지, 오리의 고기생산주기를 훨씬 앞당기면서 비육도를 10~20%이상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닭의 마리당 알생산량을 더 늘이고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할수 있게 하였다.

안변군 화산농장, 비산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첨가제도입에 힘을 넣어 축산물생산을 늘이였다.

알곡먹이량을 줄여 수익성을 높인것도 자랑할만 한것이다.

화대군 읍, 룡원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여러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들에서 돼지기르기에 거친먹이와 가금배설물을 리용할 방도들을 찾고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때 일군들은 거친먹이가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꿈틀운동을 원활하게 하며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소화가 잘된다는것 그리고 집짐승들의 배도인차 불릴수 있기때문에 증체률을 높이고 많은 배설물도 얻을수 있다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알곡먹이대신 가공한 거친먹이와 가금배설물로 먹이량의 30%를 보충하면서도 증체률을 높이였으며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실어냄으로써 지력도 높일수 있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일군들은 배설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내놓고 실천하였다. 농장에서는 1 000여마리의 돼지, 오리를 기르면서 배설물들이 말끔히 탕크에 흘러들수 있게 집짐승우리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발효시켜 전기를 생산하였으며 남은 물과 깡치는 모두 논밭에 내여 지력을 높이였다. 한해동안 나오는 량은 수천t이 되는데 이것은 논벼생산을 늘이는 보약처럼 쓰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축산을 잘하고있는 많은 단위들에서는 집짐승배설물을 균처리하여 유기질비료의 효과성을 훨씬 높이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많은 농장들이 축산물생산에서 원가를 줄이고 수익을 높인것은 뜻깊은 올해에 모든 단위들이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

본사기자 정 영 철

세차게 몰아치는 온실남새농사열풍

지난해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열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12월의 그날까지 여러 온실남새생산기지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남새와 축산, 과수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전국의 농촌들에서 170여정보의 면적에 수천동의 남새온실이 새로 일떠서 온실남새농사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도처에서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실건설과 품종선택, 계단식재배조직, 모기르기, 토양관리, 환경관리, 병해충피해방지 등 재배공정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많은 도, 시, 군들에서 남새온실을 실리있게 건설하였다.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온실들만 놓고보더라도 온도보장이 기본이라는 원칙에서 건설에 품을 들이였다. 해빛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도 남새재배에 유리하게 궁륭식박막온실과 토벽식박막온실들을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한겨울에도 온실남새를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였다.

품종배치문제를 해결하여 온실남새생산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한 단위들이 늘어났다. 락랑구역 중단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수많은 농장들에서는 온실남새농사를 위한 과학적인 품종배치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배추, 시금치, 부루, 쑥갓 등 온실남새생산을 늘이였다.

평성시 삼화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계단식재배조직을 짜고들었다. 결과 온실안에서 여러가지 남새를 립체적으로 재배하여 땅의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함흥남새전문농장 온실분장에서는 식물영양강화제생산기지를 훌륭히 건설하여 온실남새생산을 계단식으로 안전하게 내밀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전국적으로 온실남새생산에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홍원군 읍협동농장에서는 남새온실에 수경농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온성군온실남새생산사업소에서도 온실안에 돼지우리를 짓고 수십마리의 돼지를 길러 추운 겨울철에도 온실안의 온도를 보장하였을뿐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거름을 리용하여 온실남새생산을 늘이였다. 화성온실남새농장을 비롯한 수많은 농장들에서 온실관리공들의 책임성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온실남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전국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에 이룩한 경험을 적극 살려 뜻깊은 올해에 온실남새생산에서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주 창 일

온실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홍원군 읍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도처에서 들려오는 버섯재배자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먹이기 위해서는 버섯생산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온 나라에 버섯재배바람이 세차게 불어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평양시버섯공장을 비롯한 각 도에 건설된 버섯공장들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버섯기질성형공정, 버섯무균공정, 버섯재배공정 등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는 물론 기업관리의 경영정보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여있다.

무균화공정과 종합조종실설비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는 기본생산건물들에 전력보장대책도 세워져 버섯재배의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게 됨으로써 흰곤봉버섯재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또한 그 폐기질을 리용하는 궁륭식박막온실들에서는 느타리버섯이 재배되고있다.

버섯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첨단돌파전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과학자들의 노력이 컸다. 그들은 각지에 건설된 버섯공장들에 달려나가 종균배양과 기질생산 등 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버섯생산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장자강버섯공장에서는 영양효과가 쌀겨와 맞먹으면서도 멸균효과와 잡균방어력이 높은 광물질을 버섯생산에 적극 리용하였다. 결과 종전보다 쌀겨리용량을 절반이나 줄여 원가를 낮추면서도 버섯생산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시와 농촌들에서 자기의 지역적특성에 맞게 기질문제와 필요한 종균을 해결하여 많은 버섯을 생산하고있다. 적지 않은 단위들에서 버섯의 종균과 기질생산에 쌀겨를 전혀 쓰지 않고 활성감탕을 리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모란봉구역채과도매소의 경험을 본받아 버섯생산을 늘이였다.

수십t의 버섯을 생산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과 사리원시 미곡, 대동군 원천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비닐박막온실을 짓고 가을부터 봄철까지 버섯생산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가정들에서도 터밭에 작은 온실을 짓고 수백kg, 최고 1t의 버섯을 생산하였다.

말그대로 온 나라에 버섯재배바람이 휘몰아쳤다.

지난해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는 우리 조국이 멀지 않은 앞날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버섯의 나라로 그 이름 떨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김 강 철

분조장들이 농촌의 믿음직한 선구자, 기수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년간 전국의 분조장들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농촌핵심이라는 남다른 영예와 크나큰 긍지를 안고 사회주의농촌의 선구자, 기수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지난해 2월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였던 분조장들은 물론 전국의 농촌들의 수많은 분조장들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한 영농전투를 통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투사들로 억세게 자라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분조장들은 분조농사와 분조관리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의 참된 주인, 능숙한 지휘관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분조장들이 분조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모든 일을 주도세밀하게 조직진행할데 대한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하기에 분조장들은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데서 밑거름이 될 각오를 가지고 새벽이슬도 남먼저 맞고 밤잠도 남보다 적게 자면서 분조농사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섰다. 그 과정에 그들은 무슨 일이나 맡겨주면 척척 해제끼는 능력있는 초급일군들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정주시 오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분조장들은 분조장의 임무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여 농업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회령시 창효협동농장의 분조장들만 놓고보아도 분조농사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능숙한 지휘관들로 성장하였다.

북부지대의 불리한 봄날씨조건에서도 앞선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량을 늘인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지난 시기 분조들에서는 5평짜리 모판을 만들어 모를 길러내군 하였는데 봄철의 낮은 온도의 영향으로 모를 가쯘하게 키워내지 못하고있었다.

특히 모판가장자리부분의 모들이 랭기를 받아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곳 분조장들은 농장기술일군들의 방조밑에 몇해전에 일반모판 4개를 합친것만 한 규모의 모판을 만들었다.

박막도 크게 만들고 모판에 씌운 높이도 종전의것보다 더 높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모판안의 열보존능력이 훨씬 커졌다. 지난 시기 작은 모판을 리용할 때에는 기온이 내려가는데 따라 모판안의 온도가 빨리 내려갔다. 그러나 모판을 크게 만든데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 분조들에서는 지난해에도 이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튼튼한 모를 키워낼수 있었으며 더 많은 알곡을 증수할수 있었다.

박천군 단산협동농장의 분조장들도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분조의 참된 주인들로 준비되였다. 논농사에서 불경두둑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수확고를 높인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논벼농사가 기본인 이 분조들에는 물을 대기가 힘든 포전이 적지 않았다.

또한 습지형태로 된 포전도 있는데 이런데서는 류화수소가스를 비롯한 유기산이 많이 생겨나는것과 함께 뿌리의 생육과 활성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미량원소들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분조장들은 논을 갈지 않고 두둑을 지은 다음 모내기를 하는 방법을 받아들였는데 많은 연유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땅속산소보장이 잘되여 논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었다.

결과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훨씬 높였다. 이것은 바로 이곳 분조장들이 분조농사를 자기들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립장에 서서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한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각지 농촌의 많은 분조장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분조장의 임무대로 모든 농사일에 정통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새 세기의 진짜배기실농군들로 준비된것이 또 하나의 큰 자랑이다.

분조장들속에서 현대농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게 준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지난해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그 덕을 본 은파군 농장들의 분조농사경험을 놓고보자.

이 분조들에서는 비료효과뿐아니라 살충효과도 큰 가둑나무우림액을 리용하여 병해충피해를 미리막아 알곡생산량을 늘이였다.

지난 시기 이 분조들은 지력도 일정하게 높이였지만 수확고를 올리지 못하고있었다.

원인은 병해충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도 있었지만 농장원들과 함께 직접 농사일을 하는 분조장들이 과학기술을 소유하지 못한데 기본 원인이 있었다.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없다고 생각한 분조장들은 농장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앞선 영농방법들을 배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유기농법의 하나인 가둑나무우림액을 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였다.

가둑나무잎에는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영양성분들외에도 살충, 살균물질들이 들어있다. 이것을 리용하면 원가를 적게 들이고도 수확고를 높일수 있었다.

분조장들은 자체로 가둑나무우림액을 만들어 적지 않은 면적의 논에 뿌려주었는데 그 효과를 크게 보았다.

이것을 계기로 분조장들은 아는것만이 힘이며 알아야 진짜배기실농군이 될수 있다는것을 깊이 새겨안았다.

선천군 삼성, 문덕군 룡림, 재령군 북지, 신천군 백석협동농장, 숙천군 약전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농장들의 분조장들도 여러가지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쇠소리가 나고 실력있는 선군시대 농촌혁명가들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분조장의 다섯가지 임무를 심장깊이 새기고 투쟁해온 지난 1년동안 농촌의 믿음직한 선구자, 기수로 성장한 분조장들을 보며 사람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진하는 사회주의농촌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조국의 산림초소를 지켜가는 애국자가정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봉산군산림경영소 오봉리산림책임감독원 박경남동무와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고 온 나라를 숲이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한대의 나무라도 더 심고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는 피어린 싸움의 날과 달이였다.

그 나날 얼마나 많은 애국자가정이 태여났던가.

박용철 8형제의 뒤를 이어 총대가정들이 련이어 배출되고 엄복순동무의 가정이 온 나라가 다 아는 혁명적군인가정으로 되였다.

고난의 그 시기 비록 혁명의 군복은 입지 않았으나 후방에서도 이들처럼 온 가족이 한초소에서 이 땅을 지킨 가정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봉산군산림경영소 오봉리산림책임감독원 박경남동무의 가정이다.

공훈산림공이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홉 남매가 산림부문에 진출하여 조국의 푸른 숲을 가꿔온 애국자가정, 지난 20년간 3,500여정보의 산림에 600여만그루의 창성이깔나무와 150여만그루의 잣나무를 비롯한 수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이 가정을 가리켜 사람들은 산림감독원가정이라고 부른다.

푸른 숲과 더불어 이어지는 억센 바통

아버지가 혁명가였다고 하여 아들도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가.

할아버지가 애국자였다고 하여 손자도 저절로 애국자가 되는가.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 여름 오봉리의 왁새골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다.

병색이 짙은 그의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돋혀있었고 걸음걸이는 몹시 무거웠다. 산길에는 익숙되였는지 골짜기를 내리면서 한번도 발밑으로 머리를 떨구지 않는 그의 눈빛은 저 멀리 한점을 향하고있었다. 박경남동무의 아버지 박승환이였다.

《오늘쯤은 맏이가 올 때가 되였는데…》

그의 입에서 부지중 튀여나온 말이였다.

벌써 며칠째 제대되여 순천시의 어느 한 기업소에서 일하고있는 맏아들인 박경남동무를 기다리고있는 그였다.

그날도 여느때같지 않은 몸으로 담당한 산림을 돌아보고 내려오는 그의 머리속에는 한달전 맏이에게서 받았던 편지의 구절이 생각났다.

《…아버지의 마음은 리해됩니다. 그러나 꼭 산림부문에 서야만 조국을 받드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사시절의 전우들과 용약 달려온 이 초소에서 한생을 빛내고싶습니다.》

그러던 맏이가 별안간 집에 온다는 련락이 왔다.

그때부터 맏이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중이였다.

박경남동무가 문을 열고 들어선것은 그날 밤이였다.

몇년만에 집으로 돌아온 그를 둘러싸고 법석이던 형제들도 잠자리에 든 깊은 밤 박경남동무는 아버지와 마주앉았다.

《당조직에서 저를 보냈습니다. 아홉 남매를 다 산림초소에 세우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고 하면서 우리 당비서동지는 산림을 가꾸는것은 1년 농사를 짓는것과는 다르다, 한생을 바쳐도 그 덕은 후대들이 입게 되는 산림을 가꾸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애국자라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마음을 인차 따르지 못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날 밤 박경남동무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산과 얽힌 자기 가정의 래력으로부터 오불꼬불한 소나무밖에 없던 고향마을의 산들을 경제적가치가 큰 창성이깔나무와 잣나무로 개조하던 나날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계획에 대하여…

다음날부터 박경남동무는 엄격한 아버지의 제자가 되였다.

얼핏 생각해보면 산림감독원은 누구나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생명체인 나무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생물학적특성과 경제적가치에 대하여 그리고 서로 다른 과에 속하는 나무들의 서로 다른 습성에 대하여.

짐승도 함께 있으면 안되는것이 있는것처럼 나무도 같은것이다.

산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골짜기마다 바람결이 다르고 릉선을 사이두고 해비침과 토양이 같지 않은 조건에서 나무들의 특성에 맞는 적지선정을 하자면 땅속을 자기 속마음같이 알아야 하는것이다.

여러가지 상식도 있어야 한다. 바람새를 보고 예견되는 날씨를, 지나가는 냄새를 맡고도 일어난 상황을 추리할수 있는 판단력과 함께 뜻밖의 사고에 대처할수 있는 영민한 사고력과 용감성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아버지는 박경남동무에게 그 모든것을 하나하나 배워주었다.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산발을 타면서 한그루의 나무도 스치지 않고, 한 골짜기도 놓치지 않고 씨앗을 받아 나무모를 키우고 나무사름률을 높이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다.

하나라도 더 많이 배워주고 넘겨주려고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은 박경남동무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그렇게 불같은 2년이 흘렀다.

어느날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직감한 아버지는 산림감독원으로 임명된 박경남동무를 앞에 앉히고 말하였다.

《내 한생 산과 함께 살아오면서 체득한것은 다 넘겨주었다. 남은것은 마음뿐인데 맏이야,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동생들에게도 부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다오. 동생들을 잘 이끌어주거라. 부탁한다.》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을 박경남동무는 마음속깊이 새기였다.

당시 제대군인들인 셋째 박경철과 넷째 박경학, 중학교를 졸업한 막내인 박경일과 유일한 녀동생인 박성실은 산림부문에서 일하고있었다. 둘째인 박경수는 제대되여 천성청년탄광에서, 다섯째 박경오는 어느 한 공장에서 자동차운전사로 일하고있었고 나머지동생들은 조국보위초소에 있었다.

박경남동무는 동생들과 힘을 합쳐 아버지가 못다한 일에 달라붙었다.

정방산줄기일대에 자리잡고있는 오봉리는 대부분 지역이 산지로 되여있었다. 예로부터 이 지대에는 떡갈나무, 물푸레나무, 소나무들이 많이 자랐다. 그러던것이 우리 당의 산림개조정책에 의하여 많은 전변을 가져왔지만 아직 할 일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조국이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검질긴 고립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여서 산의 나무가 적지 않게 줄어들고있었다.

박경남동무와 동생들은 골짜기를 하나씩 맡아안고 한쪽으로는 나무모를 심고 가꾸면서 다른쪽으로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아침부터 산발을 타면서 종일 나무를 심고 가꾸고 지키고 하느라면 다른 생각할 사이도 없었다. 그러다가도 밤이면 저도 모르게 감겨드는 생각에 박경남동무는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다섯째인 박경오때문이였다. 자동차운전사로 일하는 경오가 도무지 숲을 가꾸는 일에 마음붙일 생각을 하지 않고있는것이였다.

학교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손끝이 여물어 여느 동생들속에서도 뛰여났던 그가 군대에 나가지 못하고 자동차운전사로 된것은 한쪽손의 상처때문이였다. 그래서인지 경오는 힘든 일에 나서기를 저어했다.

그런 동생을 불러앉히고 몇번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요지부동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맥빠진 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경오는 박경남동무에게 자기 속을 터놓았다.

《한생 산에 나무를 심어봐야 누구한테 고맙다는 소릴 듣길 해요 그렇다고 제가 심은 나무를 제 마음대로 쓰길 하나요. 탄광에서 일하는 둘째형도 그렇고 여섯째, 일곱째도 제대되면 다 자기 하고싶은 일을 하게 하자요. 아홉 남매가 다 이 산골에 오구구 박혀서 남는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불끈 쥔 주먹을 들었던 박경남동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해있는 동생에게 박경남동무는 말하였다.

《제 태줄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자식, 네 눈에 이 산골이 그리도 하찮게 보인다면 가거라. 그러나 이다음 여기가 제 고향이라고 감히 발길을 하지 말거라. 이제부터 너에게는 고향이 없다.》

박경남동무는 더욱 억척스럽게 산을 가꾸었다. 언제든지 돌아오고야말 경오의 몫까지 합쳐 두배, 세배의 일감을 안고 뛰였다.

맏형의 진심을 뒤늦게야 알게 된 경오가 고향으로 돌아온것은 그로부터 퍽 후였다. 그즈음 나서자란 고향을 버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값없는것인가를 절감하고있던 그였다. 고향은 결코 태를 묻은 곳만이 아니였다.

유년시절의 행복했던 추억이 있고 나날이 넓어지는 가슴에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심어준 고향, 청춘과 더불어 보다 큰 포부를 간직하게 해준 고향은 자기를 낳아 젖먹여준 어머니품이였고 고향집어머니의 사랑에는 비기지 못할 사랑과 정으로 자기를 품어안고 더 높은 곳으로, 보다 밝은 미래에로 떠밀어준 어머니조국이였다.

자책속에 눈물을 흘리는 동생을 품에 안은 박경남동무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네가 이렇게 올줄 알았다.》

그후 여섯째 박경빈과 일곱째 박경석이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왔다.

어느해 추석날이였다.

아버지의 산소를 찾은 형제들이 한창 아버지의 묘를 손질하고있는데 《둘째삼촌이다.》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들고보니 저쪽에서 둘째 박경수가 안해와 함께 오고있었다. 성큼한 성격 그대로 큰 자욱을 찍으며 다가온 박경수의 손에는 통나무 한토막이 쥐여져있었다.

박경남동무의 앞으로 다가온 그는 말하였다.

《동발나무토막입니다. 우리 동무들이 언제나 탄광을 잊지 말라며 주더군요. 형님, 저도 동생들과 함께 고향땅을 지키렵니다.》

동생들이 환성을 올리며 둘째를 에워쌌다.

한생 기쁨속에, 눈물속에 말없이 남편과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해준 리순애녀성도 둘째아들을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날 아버지의 산소앞에 사연깊은 동발나무토막을 세워놓고 박경남동무와 그의 형제들은 맹세다졌다.

산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주자고.

그날 저녁 박경남동무는 멀리 하늘가를 바라보며 속으로 뇌이였다.

(아버지, 동생들이 모두 산림초소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던대로 우리 고향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겠습니다.)

아직은 봉산군의 자그마한 리에 산림감독원가정이 생겼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던 때 그들은 고향의 푸른 숲을 떠받드는 애국의 억센 바통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었다.

조국의 만년대계의 재부인 숲, 그의 푸르름과 무성함은 결코 한두해나 한세대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피와 땀, 목숨까지도!

박경남동무의 아홉 남매가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을 떠이고서
푸르러 설레이는 한그루 소나무여
…

위대한 장군님 따라 시련과 난관을 꿋꿋이 이겨내며 보다 밝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의 모습을 강풍이 몰아치는 겨울에도 제 본태를 잃지 않는 소나무에 비긴 이 노래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날이 푸르러가는 고향의 숲은 그대로 만난을 이겨내고 부강번영의 한길로 나아가는 조국의 모습이였다.

그래서 비록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도 가슴은 보람찬 삶의 희열과 크나큰 긍지로 가득찼다.

저녁마다 박경남동무의 집에서는 기술학습이 진행되였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박경남동무는 동생들에게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데서 알아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아침부터 산과 골짜기들을 오르고 내리며 며칠전부터 새로 심기 시작한 나무들을 살피던 박경남동무의 눈빛은 넷째가 담당한 구간에 이르러 흐려졌다. 바로서지 못한 여러그루의 나무모들이 눈에 띄였던것이다. 나무모 하나를 흔들어보니 대번에 뽑힐듯 하였다.

박경남동무에게 넷째가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오늘까지 이 릉선의 나무심기를 끝내야겠기에…》

넷째와 함께 바로 심지 못한 나무들을 다시 정성다해 심고난 박경남동무는 그날 밤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하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해방전 어느해 가을, 며칠째 낟알구경도 하지 못한 자식들과 갓 몸을 푼 안해가 온기 한점 없는 구들에 누워있는 정상을 보다못해 한 장정이 삭정이라도 주어올 생각으로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다. 7살이였던 둘째가 아버지를 따라나섰다. 그들이 오전 한겻이나 산골짜기를 헤매며 주어모은 삭정이 한단을 지게에 담아지고 마을동구길에 들어섰을 때였다.

뜻밖에도 마을 지주놈이 앞을 막아섰다.

《주인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산에 올라?》

이렇게 뇌까린 지주놈은 다짜고짜 행패질을 해댔다. 지주놈은 장정을 지팽이로 사정없이 두들겨패고도 성차지 않아 삭정이에 불을 질렀다.

삭정이도 타고 지게도 탔다. 그날 반나마 타버린 빈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정과 어린 소년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

박경남동무는 동생들에게 말하였다.

《그날의 장정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고 7살 난 소년이 우리 아버지라는것을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아버지는 한생 그날의 설음을 잊지 않고 살았다. 지주놈이 주인행세를 하던 산이 우리의것이 되지 않았니. 그래서 아버지는 공훈산림공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보답하자고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산을 가꾸었다.》

박경남동무의 이야기는 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진정한 주인만이 이 땅의 흙 한줌, 그 땅에서 자라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제 피와 살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정을 쏟는것이다.

푸른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되자!

누구나 이런 마음속결의를 다지며 더욱 분발해나섰다.

박경남동무는 산림개조계획에 따라 나무가 적지 않게 줄어든 바람골에 이깔나무를 더 심을 결심을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런데 일은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았다. 다른 산들에 비해 류달리 많은 꼬부랑소나무와 잡관목을 걷어내고 이깔나무를 심었지만 토심이 깊지 못한 이곳 자갈땅에만은 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호미날을 대면 벅벅 돌긁히우는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척박한 그 땅에 나무를 심을 방도가 없겠는가.

심으면 죽고 또 심으면 또 죽는 어린 나무모를 그러안고 안타까와하는 박경남동무에게 마을의 한 로인이 말하였다.

《애쓰다가 안되는거야 어찌겠나. 좋은 땅도 많은데 손을 떼게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더니 그와 마주서는것이였다.

맏이야, 그 땅도 내 조국땅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도 응당 나무들이 뿌리내리고 푸른 숲이 우거져야 한다.

박경남동무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는 시들어가는 나무모들을 흔들어보기도 하고 뿌리를 파보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는 후미진 곳에서 한그루의 이깔나무가 파릇파릇 물이 오르는것을 발견하였다. 한달음에 달려간 그는 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그의 얼굴에 기쁨이 어리였다. 이 자갈땅에도 구뎅이를 깊이 파고 부식토를 두툼하게 깔아주면 얼마든지 나무가 뿌리내리게 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겼다.

그렇게 무진 애를 쓰며 나무를 심어놓으니 이번에는 물이 부족하여 사름률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박경남동무는 물지게를 지며 뇌이였다.

《물을 져날라서라도 어떻게 하나 이 나무들을 살려야 한다.》

동생들과 그 안해들이 박경남동무의 뒤를 따라섰다.

한두그루도 아니고 여러 정보에 심은 그 많은 나무에 물을 길어준다는것이 쉬운 일인가. 며칠이 지나자 녀자들부터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산림감독원가정의 딸이라고 마지막까지 버텨내던 성실이가 산중턱에서 쓰러지며 원망하듯 맏오빠에게 한마디 했다.

《사람이 더 귀하나요, 나무가 더 귀하나요? 오빤 정말 너무해요.》

하루 좀 건넜다 하자던 동생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한주일째 꼬박 물주기전투를 내밀어온 박경남동무에 대한 불만이였다.

그러는 녀동생을 손잡아 일으키며 박경남동무는 말하였다.

《너도 자식을 낳아 키워봤으니 잘 알지 않니. 갓난아기의 한끼한끼의 영양섭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걸. 나무모도 같단다. 아직은 뿌리도 내리지 못한 애기나무를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니?》

맏오빠의 이야기에 성실은 끝내 머리를 숙이고말았다.

성실의 눈에 비쳐진 맏오빠는 참으로 량심이 대쪽같은 사람이였다.

어느해 봄 군의 상업봉사부문에서 일하는 한 일군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박경남동무앞에 당시 인기를 끌던 큼직한 거울을 2개 내놓으며 집보수에 쓰려고 하니 나무를 몇대 도와줄수 없는가고 물었다.

박경남동무는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한개 단위의 일군이라는 사람이,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야 할 사람이 자기 집일을 놓고 국가의 재산을 흥정하려든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그가 바로 보이지 않았다. 그가 가지고 온 맑은 거울에 흐린 그 일군의 속마음이 내비치는것 같았다.

박경남동무는 거울에 눈길을 주며 입을 열었다.

박 경 남 동 무 (왼쪽으로부터 다섯번째)

《일단 가져온것이니 성의로 알고 하나만 받읍시다. 하나는 도로 가져가도록 하시오. 집을 보수해야 한다니 나무는 해당 기관과 토의하여 해결받도록 하고…》

그는 거울값을 치르고나서 말을 이었다.

《우리 약속합시다. 늘 이 거울에 자기의 량심을 비추어보며 살자는것을 말입니다.》

박경남동무의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의 량심을 비수같이 찌르는 박경남동무의 이야기에 일군이 받은 충격은 컸다. 한동안 머리를 숙이였던 그는 박경남동무의 두손을 굳게 잡으며 말하였다.

《오늘을 언제나 잊지 않겠소.》

숲은 량심을 바치는만큼 보물을 준다는것이 박경남동무의 지론이였다.

아버지맞잡이인 박경남동무의 모범은 동생들을 감동시켰고 동생들도 모두 숲을 가꾸는 일에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열정을 바치였다.

그 길에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마음먹은대로 산림개조전투를 내밀자니 모자라는것이 나무모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무모는 싸우는 병사의 탄약처럼 귀했다.

그래서 조림작업반을 맡은 막내인 경일은 늘 형들에게서 《시달림》을 받고있었다. 누구나 나무모를 내라고 성화였다.

그때마다 박경남동무가 동생들을 나무라며 막내편역을 들어주었다.

《그러게 조림작업반을 도와 후방사업을 하란 말이다. 후방사업이자 곧 정치사업이라지 않니. 그렇지 않습니까? 조림작업반장동무.》

박경남동무에게 있어서 막내인 경일이는 동생이기 전에 믿음직한 혁명동지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도 많았지만 형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스스로 나무모를 가꾸는 일을 맡은 기특한 동생, 늘 어려운 일은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졸라대던 동생이였다.

당원증을 받아안고 온 날 《형님, 이젠 저도 당원입니다. 제가 정말 당원답게 살수 있을가요?》하며 눈물이 그렁해있던 경일이가 뜻하지 않게 희생된것은 지난해 3월 어느날이였다.

넷째인 경학이가 맡은 사골에 2만그루의 이깔나무를 심게 되여있어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기 위하여 산에 올라왔다.

산림책임감독원으로서, 산림감독원가정의 맏이로서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안고 일하면서도 언제 한번 큰소리를 칠줄 모르는 그런데 시간이 퍼그나 흘렀어도 나무모가 올줄을 몰랐다. 이제나저제나 나무모를 기다리고있는데 문득 막내와 함께 일하는 작업반원이 박경남동무에게로 허둥지둥 뛰여왔다. 그러더니 그를 와락 끌어내리는것이였다.

《반장동무가, 반장동무가 자동차에 나무모를 싣고 오다가 그만…》

《우리 막내가 어떻게 되였단 말이요?》

박경남동무는 다급히 물으며 그 작업반원을 부둥켜잡았다. 오열을 삼키며 떠듬거리는 작업반원의 목소리가 박경남동무의 귀청을 때렸다.

아침해살이 엷은 안개를 헤치며 퍼져가는 속으로 나무모를 가득 싣고 달리는 자동차 한대, 그 적재함을 꽉 채운 나무모사이에 작업반원들과 자리를 잡고 앉은 막내 경일이의 입에서는 흥얼흥얼 코노래가 흘러나왔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고 묻는 작업반원들에게 경일이는 말했다.

《우리가 키운 나무모들이 산에 첫 살림을 펴는 날이 아니요. 자식들을 키워 세간내는 부모의 심정이랄가. 이럴 땐 절로 즐거워지거던.》

나무모들을 자기 살붙이처럼 여기는 그의 이야기에 모두가 머리를 끄덕이던 그 찰나 급인돌이로 꺾어들던 자동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

박경남동무는 한달음에 뛰여내려갔다.

경일이가 두손으로 나무모짐을 그러안은채 고요히 누워있었다.

《경일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다 바쳐 푸르게 키워낸 나무모들을 그러안고 숨을 거둔 경일이앞에서 박경남동무와 그의 형제들은 쓰라린 아픔속에 부르짖었다.

(경일아, 네가 키운 이 나무모들을 우리 산에 정히 심고 잘 키우련다.)

애국은, 산림을 가꾸는 일은 피와 땀 지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여있어야 함을 그들은 사랑스러운 막내동생이자 미더운 혁명동지였던 경일이의 고결한 희생앞에서 심장에 쪼아박았다.

박경남동무의 아홉 남매는 이렇게 조국의 푸른 숲에 고귀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이들은 지난 기간 황폐화된 수백정보의 산을 푸른 숲 우거진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만들고 3,500여정보의 산림을 푸르게 가꾸어 도와 군안의 건설장들에 많은 량의 목재를 보내주고 협동농장들에 땔나무를 보장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전 지난 20년간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자기의 순결한 량심을 바쳐온 박경남동무의 애국적소행을 헤아려주시고 그를 선군시대공로자로 내세워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모두가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킬것을 바라고있다.

누구나 이 나라의 공민이라면, 그가 산림초소에 서있든, 공장과 농촌의 평범한 근로자이든 박경남동무와 그의 가정처럼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심을 지니고 일한다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또 얼마나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될것인가!

글 본사기자 현경철
본사기자 리건일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는다

청년학생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우신 리인모동지의 반신상을 찾았다.

원쑤들의 온갖 회유와 기만, 악착한 고문속에서도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켜 굴함없이 싸운 리인모동지의 넋과 불굴의 기개를 되새겨보는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 당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을 굳센 의지가 불타오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 쌀겨를 대용하는 ◎

새로운 버섯기질영양첨가제 개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적으로 버섯생산에 필요한 대용기질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쌀겨를 대용하는 새로운 버섯기질영양첨가제인 《금강1》호를 개발하였다.

쌀겨대용보충영양원인 《금강1》호가 개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를 가지고 기질생산을 늘여 버섯생산을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일반적으로 버섯재배는 버섯원균을 1차, 2차 증식배양하여 파종용종균을 생산하고 이것을 재배용기질에 접종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현시기 해당 버섯생산단위들의 버섯재배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재배용기질원료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것이다.

지금 널리 쓰이는 기질생산방법에서는 기질의 기본원료로 강냉이속, 톱밥 등 섬유소계원료를 리용하고 여기에 보충영양원으로 쌀겨와 비료 또는 활성감탕 등을 첨가한다.

공업적방법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단위들에서의 기질생산은 대체로 섬유소계원료에 쌀겨를 첨가한 다음 멸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여기서 쌀겨는 질소보충을 위한 영양원으로뿐아니라 광물질, 비타민의 보충재료로 쓰인다.

그러나 쌀겨는 축산을 비롯하여 리용분야가 많은 반면에 그 량이 제한되여있으므로 버섯생산을 공업적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소장 박사 리선희동무를 비롯한 중앙버섯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쌀겨를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로 대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 과정에 금강약돌이 항산화활성이 높고 유용한 광물질이 풍부하며 일정한 정도의 암모니아흡착능력을 가지고있으므로 질소보충의 방도만 해결하면 능히 쌀겨를 대용할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금강약돌을 리용하여 비료의 질소를 버섯균이 직접 흡수할수 있게 하는 금강약돌첨가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만들어낸 금강약돌첨가제에는 수십종의 광물질미량원소들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광물질들은 버섯균체의 생리적기능을 조절하는 동시에 버섯균의 질소영양흡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좋은 점을 가지고있다. 또한 금강약돌첨가제는 강한 열복사기능을 가지므로 멸균효과가 높으며 약알카리성을 띠므로 주요잡균들을 억제한다.

그리하여 금강약돌첨가제와 비료로 쌀겨를 대용할수 있는 보충영양원인 《금강1》호가 개발되게 되였다.

과학자들은 쌀겨대용보충영양원인 《금강1》호를 현장에 도입해보았다. 도입결과 《금강1》호는 하루균실생장속도에서나 균배양일수, 기질 t당 균체량과 버섯수확량에서 쌀겨를 리용할 때와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결국 영양학적가치에 있어서는 쌀겨와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또한 《금강1》호는 먼적외선 열복사기능을 가지고있으므로 쌀겨를 첨가할 때보다 멸균성이 좋았으며 주요잡균들에 대하여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버섯재배기질은 강냉이속 1t에 쌀겨를 200~250kg 첨가하여 만드는데 새롭게 개발한 《금강1》호는 강냉이속 1t에 5kg을 첨가하면 되므로 기질생산원가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새로 개발한 《금강1》호는 쌀겨를 완전히 대신하는 매우 값눅은 원료일뿐아니라 멸균효과와 잡균억제력이 높아 아주 경제적이다.

지금 중앙버섯연구소에서는 《금강1》호의 우점을 살려서 보다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 손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기질생산방법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영원한 주체의 태양을 우러러 끝없이 만발하는 김정일화

성대히 열리게 될 제19차 김정일화축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온 나라 방방곡곡에 아름다운 김정일화가 더욱 붉게 피여나고있다.

전국도처에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우리 민족사와 인류정치사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에 떠받들려 불멸의 꽃축전과 전시회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우리는 온 나라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칭송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될 불멸의 꽃축전을 앞두고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뜻깊은 광명성절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게 되는 이번 김정일화축전에 대하여 알고싶다.

국장 리병파: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주체86(1997)년 제1차축전이 진행된 때로부터 올해 19번째의 년륜을 새기게 되는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위인칭송의 꽃축전으로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훌륭한 꽃축전으로 알려져있다.

첫 축전에 800여상의 김정일화가 출품된 때로부터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있으며 참가단위도 많아지고있다. 이번 축전의 주제는 《약동하는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여 만발한 김정일화》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는 천만군민의 이 신념과 의지를 이번 축전을 통하여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부국장 김련혁: 축전의 주제에 맞게 사상적대가 뚜렷하고 조형예술성이 훌륭히 보장된 총형성도안과 부문형성도안들, 선전화가 완성되였다. 축전조직위원회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에 내려가 영생축원의 꽃바다가 펼쳐지게 될 축전장을 보다 이채롭게 장식하도록 그 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분과들이 구체적인 일정계획에 따라 축전장의 내외부를 훌륭히 꾸리는 사업도 힘있게 내밀도록 하고있다.

리병파: 지난해 8월 위원회에서는 올해의 김정일화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재배공들에 대한 강습을 조직하고 김정일화재배에서 앞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꽃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고 통보해주는 사업도 짜고들었다. 뿐만아니라 해당 단위들에 나가 축전장을 황홀하게 장식할수 있게 전시대형성도안을 훌륭히 완성하는 문제를 놓고 그곳 일군들과 진지한 의견들도 나누었다. 인민보안부, 인민봉사총국, 외교단사업총국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자기 단위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조형예술성이 보장된 전시대형성도안들이 나왔다.

기자: 인민무력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참가단위들이 김정일화재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다.

책임부원 림영금: 지금 축전참가단위들의 온실마다에서는 축전을 앞두고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온 나라 인민의 충정의 마음인양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활짝 피여나고있다. 사실 계절적특성으로부터 조명시간을 더 늘여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 계속되여 꽃재배에서는 많은 난관이 제기되였었다. 그러나 재배공들은 한몸이 그대로 빛과 열이 되여서라도 축전장에 불멸의 꽃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펼치기 위해 책임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갔다.

최고재판소, 은하지도국 등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김정일화의 생육조건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고있다. 교육위원회, 의학과학원,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등의 일군들은 온실개건에 앞장섰으며 불멸의 꽃재배사업을 잘 밀어주고있다.

그 어느 단위에 가보아도 불리한 날씨나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불멸의 꽃은 더 활짝 피여나고있다. 뿐만아니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외국의 벗들의 열의 또한 대단히 높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현실을 보면서 어버이장군님을 따르는 인민의 충정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였으며 김정일화야말로 만민의 심장속에서 피여나는 위인칭송의 꽃이라는것을 더욱 감명깊이 느끼게 되였다.

기자: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관심속에 성대히 열리게 될 불멸의 꽃축전이 기다려진다.

김련혁: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이번 축전부터 참가단위들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상장 또는 축전참가증이 수여되게 된다. 또한 축전을 계기로 우리 나라와 인류의 귀중한 재보인 불멸의 꽃재배보급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게 된다.

제19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만민이 칭송하고 열렬히 따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온 세상에 더욱 뜨겁게 전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옥별

제19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되게 될 제19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억척같은 신념의 구호로 뿌리내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과 아름답게 피여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이 부각된 선전화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숭엄하게 형상되여있다.

웃부분에는 《광명성절》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새겨져있으며 아래부분에는 《제19차 김정일화축전》이라는 글발 그리고 축전장소와 기간이 반영되여있다.

선전화는 위대한 선군태양이신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에 떠받들려 성황리에 진행될 불멸의 꽃축전을 훌륭히 장식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심장속에 먼저 피여난 불멸의 꽃

채취공업성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인민은 없습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눈앞에 둔 요즈음 채취공업성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재배공들의 심정은 류다르다.

지난해 제18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심한 가물로 인한 물부족은 온실의 재배공들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게다가 긴장한 전력사정은 또 얼마나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었던가.

그런 속에서도 올해의 광명성절을 앞두고 이곳 온실에서는 김정일화의 꽃송이들이 류달리 더 붉고 싱싱하게 피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아름다운 꽃뒤에는 그것을 가꾸는 훌륭한 원예사가 있기마련이다.

온실재배공들뿐만이 아닌 성일군들모두가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활짝 피운 불멸의 꽃 김정일화의 아름다운 모습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어리여있다.

온실재배공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누구보다 헤아려준 사람들은 성의 책임일군들이였다.

그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온실에 자주 나와보고 김정일화재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협의회도 여러차례 진행하였으며 해당한 대책들도 기동성있게 세워주었다.

그 과정에 물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물수송차들이 달리게 되였고 온도보장을 위해 발열량이 높은 석탄이 온실의 보이라칸옆에 가득 쌓이게 되였으며 꽃의 색도가 떨어지는것 등을 막기 위해 수십개의 조명등이 새로 더 설치되였다.

일군들은 밤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에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고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온실에 달려나와 솜을 두텁게 넣어 만든 씌우개를 꼼꼼히 여며주고 온습도계의 눈금을 살펴보고야 돌아가군 하였다.

온실을 찾는 일군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다.

성일군들은 온실재배공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뜰히 돌보아주었다. 그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꽃재배에 전념하도록 문화기재들과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다 보장해주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훌륭하게 잘 키워 축전장을 아름답게 장식하자고 호소하는 성일군들의 진정에 고무된 온실책임자 림춘숙, 재배공 최영희, 한영남동무들은 불타는 충정을 바쳐가며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려나갔다.

그러던 지난 1월 중순 재배공 최영희동무가 그만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였다. 꽃재배에서 중요한 시기에 재배기술이 제일 높은 최영희동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으니 일군들의 안타까움은 참으로 컸다.

그가 수술을 받은지 이틀후 일군들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영희동무가 당장 퇴원하여 온실에 가겠다는것이였다. 이제 순간이라도 놓쳐 꽃재배에 영향이 미친다면 한생 후회속에 살게 될것이라고 호소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즉시 최영희동무를 위해 차가 달렸고 재배공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약들과 음식들, 과일 등이 마련되였다.

조명보장을 위해 만가동하던 설비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 적극 도와나선 성의 아래단위 일군인 차승철동무에 대한 이야기도 무심히 들을수 없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이곳 온실에 활짝 피여난 불멸의 꽃들을 안아보는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진정 온실에서가 아니라 성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먼저 피여난 김정일화이다. 이들과 같이 어버이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속에 태양의 꽃 김정일화는 무궁토록 만발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열화같은 충정이 비낀 7시간

락원지도국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불멸의 꽃바다를 펼쳐 올해의 경사로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장식하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은 락원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서도 뜨겁게 끓어번지고있다.

지난 여러달동안에만도 이들이 김정일화재배에 아낌없이 기울여온 정성에 대한 하많은 이야기들을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없다.

그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김정일화를 한창 자래우던 지난해 12월 이곳 온실에서는 뜻밖의 난문제가 제기되였다. 시급히 보이라를 보수해야 했던것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그라져가는 보이라의 불길을 보며 온실책임자 리천옥동무와 재배공 최은옥동무의 두볼로는 안타까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도그럴것이 김정일화의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한 때여서 꽃의 생육조건보장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것이다.

보이라의 불을 죽이고 보수하자면 2~3일이라는 기일이 걸려야 하였다. 그 기일이면 온실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김정일화의 생육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수 있었다. 온실성원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있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고 락원지도국 아래단위 일군인 박일재동무와 강주남, 신동학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달려왔다. 보이라의 상태를 살펴보고 집체적토의를 거듭하던 그들의 사색은 불을 죽이지 않고 보이라를 보수하는데로 모아졌다. 마침내 효과적인 방도가 나왔다.

하지만 보수전투는 매우 힘겨웠다. 서로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로 합치며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드디여 7시간만에 보수전투는 마무리되였고 온도보장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온실성원들의 얼굴에도, 지도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어렸다.

이런 불보다 더 뜨거운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에 떠받들려있기에 어디서나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이 2월의 강산을 붉게 물들이며 나날이 더욱 아름답게 피여나고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주령봉

광명성절경축

조선영화감상회 진행

광명성절경축 조선영화감상회가 5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김인범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결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조국보위의 한길에서 청춘시절을 값높이 빛내이고있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사상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는 조선예술영화 《들꽃소녀》를 감상하였다.

공화국영웅과의 상봉모임,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공연 진행

뜻깊은 2월 8일에 즈음한 공화국영웅과의 상봉모임과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공연이 5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상봉모임에는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직맹일군들, 시안의 직맹원,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인 공화국영웅 김승운이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해방후 건군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현대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혁명무력건설사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정규적혁명무력이 있어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집어삼키려던 날강도 미제의 침략을 쳐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수 있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발기하시고 적기사냥의 묘술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싸워 미제침략군비행기 5대를 격추하는 전과를 세우고 공화국영웅의 영예를 지닌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어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공연이 있었다.

무대에는 합창 《김일성대원수만만세》, 《조선인민군가》, 3인시 《불멸의 건군업적 길이 전하리》, 노래련곡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내가 지켜선 조국》, 혼성2중창 《선군승리 옹헤야》, 혼성중창 《근위부대자랑가》, 남성독창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 시와 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령도만 받든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필승불패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억세게 다져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칭송하는 노래들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해주었다.

전체 출연자들과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을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의 강성국가건설에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덕성이야기모임 진행

뜻깊은 2월 8일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덕성이야기모임이 5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녀맹일군들과 시안의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정규무력건설에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펼쳐졌다.

무대에 나선 항일혁명투사 강건동지의 딸 강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정규군의 골간육성을 위한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들을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군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일중대사로 여기시고 여기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여 짧은 기간에 정규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 아버지가 30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의 중책을 받아안았으며 정규무력탄생을 선포하는 뜻깊은 날에는 열병대오의 지휘를 맡아하는 최대의 영광을 지니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모란봉구역 북새종합진료소 의사 심경숙은 한번 믿음을 주시면 변함없이 믿어주고 내세워주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시아버지인 공화국영웅 리활이 항공군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공로있는 일군으로 자라난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전화의 나날에는 조선인민군 공군부사령관의 직책도 맡겨주시고 전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모해로부터 그의 운명을 건져주시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이러한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령의 군복을 다시 입혀주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로 한생을 빛내이도록 해주신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전쟁로병 림찬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그는 비범한 군사적지략과 탁월한 령군술로 군대와 인민을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이름없던 평범한 전사들이 싸움터마다에서 용맹을 떨치며 전투영웅으로 자라났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고 노래 《우리 님 영웅되셨네》를 불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뜨거운 인정미를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 혁명무력은 수령결사옹위를 절대적인 좌우명으로 삼고 언제나 백전백승만을 떨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 영예군인이 받아안은 생명

대동군 읍 72인민반 영예군인 손동운동무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있고 온 사회가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있는것은 우리가 긍지높이 자랑할수 있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입니다.》

대동군 읍 72인민반에서 사는 영예군인 손동운동무는 38살의 한창나이에 조국보위초소를 떠나게 되였다. 고향인 대동군으로 돌아와 어느 한 직장에 다니면서 그는 자신이 영예군인이라는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는 10여년전 서서히 악화된 병으로 하여 쓰러졌다. 병원에 입원해있던 어느날 군당위원회와 군인민보안서의 일군들이 그를 찾아왔다.

손동운동무는 고마움보다도 놀라움이 더 컸다.

(내가 영예군인이라는것을 어떻게 알았을가. 내가 병원에 입원한것은 또 어떻게 알고…)

그는 알수 없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전사들이 이 땅 그 어디에 있어도 빠짐없이 찾아내여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손길이 가까이에 있다는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

그때로부터 군당위원회와 군인민보안서의 일군들은 손동운동무의 건강회복과 생활상편의를 위하여 뜨거운 진정을 기울여왔다.

량명철, 김명복동무들을 비롯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병원의료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손동운동무의 치료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손동운동무가 살던 단층집이 장마철이면 습기가 심해 치료에 지장을 받는다면서 해빛이 잘 드는 아빠트에 새 보금자리도 꾸려주었다.

군인민보안서일군들의 지성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언제인가 동해지구에 출장을 갔던 군인민보안서일군인 김금산동무가 보기 드문 바다물고기를 안고 손동운동무의 집으로 찾아온적이 있었다.

《손동무는 해군출신이지. 바다향기가 그리울것 같아서 가져왔소.》

그날 김금산동무는 물고기가공방법을 세세히 가르쳐주고 손동운동무가 물고기국을 맛있게 드는것을 보고서야 집을 나섰다.

그후 그 물고기를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여다니였고 또 천여리 먼길에 정성스레 날라왔다는것을 알았을 때, 더구나 힘든 수술을 이겨낸 김금산동무의 안해가 병원에서 남편을 기다리고있었다는것을 뒤늦게야 알았을 때 손동운동무의 부부가 받아안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홍재호동무가 그들의 가정을 위해 바친 지성 또한 뜨거웠다. 자신은 물론 안해와 자식들까지 영예군인과 그 가정을 돕는 일에 내세운 홍재호동무였다.

올해 첫날 아침에도 군당위원회일군들과 홍재호동무를 비롯한 군인민보안서일군들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이제는 수십, 수백번도 더 찾아와 한가정처럼 친숙해진 그들의 손을 잡고 손동운동무는 눈물에 젖어 말하였다.

《동지들이 아니였다면, 사회주의대가정이 아니라면 친어머니도 구해낼수 없었던 제 생명을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사회주의는 저의 생명입니다!》

승철진

실천가형의 일군

신의주신발공장탁아소 소장 김영녀동무는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보육원들과 힘을 합쳐 탁아소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놓은것으로 하여 공장종업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처음 소장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탁아소관리운영에서 걸린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맥을 놓고 주저앉지 않았다.

김영녀동무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현실로 꽃피워갈 굳은 결심을 안고 스스로 자기앞에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는 비록 어렵지만 자체의 힘으로 탁아소건물의 내외부를 개건하고 부업기지도 보란듯이 활성화할것을 발기하고 보육원들을 불러일으켰다.

김영녀동무와 보육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탁아소를 어린이들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개건하였다.

그 나날에 그들은 공장당조직의 지도밑에 탁아소의 40여개의 출입문과 100여개의 창문을 개조하였으며 정문도 훌륭히 일떠세웠다.

그리고 해마다 수십t에 달하는 남새와 수백kg의 콩과 줄당콩을 생산하여 어린이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김영녀동무는 집짐승기르기도 적극 내밀어 해마다 수십마리의 돼지를 길러 탁아소가 자체로 살아나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고기문제도 해결하고있다.

그 나날 그는 밝게 웃는 귀여운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앞장에서 억척스럽게 일판을 전개해나갔다.

몇해전 소장동무는 보육원들을 발동하여 탁아소에 어린이들 누구나 좋아하며 뛰노는 실내물놀이장도 훌륭하게 꾸려놓았다.

지난해 10월 이곳 탁아소에서는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참관자들은 훌륭하게 꾸려놓은 탁아소를 돌아보면서 김영녀동무의 완강한 실천력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로농통신원 리은중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되여 날뛰는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각오하라

전쟁의 화근, 북남관계의 재앙거리

세계정치지도를 변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동기로 된것은 자그마한 총성이였다. 유럽의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지 않은 도시 싸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부부를 저격한 사건은 제국주의렬강들의 리해관계가 충돌하던 대륙정세에 불을 다는 기폭제로 되였고 끝내 세계를 무서운 대전의 참화속에 몰아넣었다.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때없이 벌어지는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은 단 하나의 사건이 세계대전의 불집까지 터뜨리게 된다는 력사의 교훈을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반공화국삐라살포는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발발을 예고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지금 내외는 반공화국삐라살포로 조선반도에서 엄중한 무력충돌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핵전쟁발발에로까지 이어질수 있다는데 대해 한결같이 우려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보려 하지 않으면서 구태의연하게 그 무슨 《표현의 자유》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지난 3일에도 남조선 통일부당국자는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측면》이니, 《강제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느니 하며 나자빠졌다.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을 계속 묵인조장하는 이런 무분별한 처사가 북남관계와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정세에 어떤 파국적재난을 몰아올것인가 하는데 대해 론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내외여론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을 싸라예보의 총성에 비유하고있다. 그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세계에는 사상과 제도, 리념이 서로 다른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에서처럼 주권국가의 신성한 령토에 국가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모독중상하는 삐라들이 뻔질나게 뿌려지고 그것이 총격전으로까지 번져지는 곳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은 삐라살포가 《북의 군대와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공화국을 와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떠들면서 《삐라풍선작전》이라는것을 끈덕지게 벌려왔다. 지금도 반공화국삐라살포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각본에서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작전계획 5029》에는 삐라살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북을 붕괴》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반공화국삐라살포계획의 실현을 위해 해마다 수천만 US$의 막대한 자금이 탕진되고있으며 미국무성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반미국가들의 정권전복을 업으로 하는 모략기구들이 총동원되여 삐라살포에 미쳐날뛰는 인간쓰레기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그야말로 삐라살포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의 총포성없는 전쟁으로 되고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용납할수 있겠는가.

삐라살포는 심리전의 한 형태로서 사실상의 전쟁행위이다. 이것이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전면전쟁의 불집을 터뜨릴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더우기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은 자기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의 면전에서 벌어지고있다. 도발자들의 악랄한 삐라살포망동이 우리 군대의 응당한 군사적보복대응을 불러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 괴뢰군부는 삐라살포가 북남사이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경우 그것을 신속히 북침전면전쟁으로 확대할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고있다. 괴뢰군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삐라살포가 시작되면 주변군부대는 모두 A급수준의 작전경계태세에 들어간다. A급이면 관하화력부대가 모두 동원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대응태세이다.》라고 실토하였다. 이것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감행되는 삐라살포망동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른 전쟁도발행위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주변나라들의 전략적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이 현실로 가동하고있는 상태에서 만약 쌍방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될것이다. 내외여론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분별없는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을 싸라예보의 총성에 비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북남관계파국을 조장격화시키는 최악의 정치적도발이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치고 《북붕괴》망상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이 북남관계에 미치는 파국적후과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사실 북남관계의 곡절많은 력사는 남조선괴뢰패당의 배신적이며 도발적인 삐라살포행위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여러차례에 걸쳐 비방중상을 하지 않겠다는것을 약속하고서도 동족대결의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특히 체제대결에 환장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을 《대북정책》의 최종목표로 내걸었던 리명박역적패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매고 삐라살포 등으로 북을 압박》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북남합의로 이미 중단된 삐라살포에 광기적으로 매달렸다. 이로 하여 북남선언들의 리행은 전면중단되고 북남관계는 극도의 대결상태에 빠져들게 되였다. 지난해 우리 총정치국장일행의 인천방문으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좋은 기회도 종당에는 분별없는 반공화국삐라살포로 하여 파괴되였다.

반공화국삐라살포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남관계개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괴뢰패당이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에 대해 《제지시킬 법적근거나 관련규정이 없다.》고 하는것은 궤변이다. 최근 남조선의 한 《법원》이 《대북삐라살포로 민중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는 경우 《당국의 대북삐라살포제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것도 그것을 립증해준다.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개선의 의지만 있다면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을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 그러나 괴뢰들은 북남관계가 돌이킬수 없는 위기에 빠지고있는 지금까지도 앵무새처럼 《표현의 자유》나발을 불어대며 자기 책임을 외면하고있다. 그러다나니 이제는 어벌이 커진 인간쓰레기들이 내외의 규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등에 업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손끝의 먼지가 동이의 물을 흐린다고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이 북남관계와 민족의 운명을 롱락하고있는것은 실로 격분할 일이 아닐수 없다.

현실은 북남관계가 다시금 파국에로 치닫고있는 책임이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비롯한 동족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괴뢰역적패당에게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자들과 과연 어떻게 마주앉을수 있겠는가.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우리 공화국을 너절한 삐라살포놀음으로 어째보려 하는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망상이다.

우리는 이미 선포한대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헐뜯는 도발광신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리 효 진

침략함선들은 왜 기여들었는가

지난 1월 30일 미제침략군 핵잠수함 《올림피아》호가 남조선의 진해해군기지에 기여들었다.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장비한 《올림피아》호는 5일부터 사흘동안 괴뢰해군 잠수함들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벌린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미제7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 《머스틴》호가 전라남도의 목포에 닻을 내리였다. 순항미싸일과 대공미싸일 등 첨단유도무기들로 장비된 이 침략함선은 이미 남조선해병대와 함께 조선동해와 서해의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벌리였다.

미국이 년초부터 남조선에 선제공격능력을 갖춘 이지스구축함, 핵잠수함을 련이어 투입하고있는것은 매우 심상치 않다. 그것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괴뢰들과의 련합작전능력을 강화하여 북침선제공격기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제침략군의 대형함선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남조선에 들이닥친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남조선언론들은 이 미군함선들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요충지들에 더 많은 전략무기들을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평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제침략군 함선들의 남조선입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날로 악랄해지는 반공화국압살야망, 북침전쟁도발기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전쟁위기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모험적인 정책의 산물이다.

미제침략군 함선들이 남조선에 나타난것은 첨예해지고있는 현 북남관계문제와 결부시켜볼때 더우기 도발적이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 사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의 대범하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싹트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로 하여 심히 흐려지고있다. 바로 이런 때에 미국이 자기의 침략함선들을 남조선에 들이민것은 북남사이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정세파국을 부채질하기 위한 고의적인 망동이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남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일 때마다 심보사납게 남조선당국을 동족과의 군사적대결에로 적극 부추기며 북남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였다. 력사적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특히 미국은 북남관계가 중요한 분기점에 놓일 때마다 비행기와 함선들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는 술책에 매달렸다. 지난해의 몇가지 사실을 놓고보자.

지난해 2월초 북과 남이 판문점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과 관련한 합의를 이룩해나가는 그 시각 미국은 《B-52》핵전략폭격기편대들을 조선서해 직도상공에 투입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벌리였다. 이어 2월말에 내외의 관심속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한창 벌어질 때에는 인도주의적행사와 합동군사연습은 《별개의 일》이라느니, 《일정변경 불가능》이니 하는 구실을 내들고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개시하였다. 또한 합동군사연습에 전략핵무력을 끌어들이지 않을것이라고 광고하고는 돌아앉아 핵잠수함을 비롯한 위험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북침핵선제공격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지난해에 우리의 거듭되는 성의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은 무참히 짓밟혔으며 핵전쟁위험은 극도로 고조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대한 자기의 전략적인 리해관계로부터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조성하려 하고있으며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최근 남조선에 련이어 기여든 미제침략군 함선들의 도발적인 군사적행동도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와 북남관계파괴를 위한 미국의 음흉한 술책의 연장이다.

극악한 반통일원흉, 침략전쟁광신자가 자기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내놓고있는 지금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고 해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군사적강점책동을 결단코 끝장내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깊이 새겨안고있다.

라 영 국

흑백을 전도하는 시정배의 너절한 추태는 력사의 심판을 면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힌 산송장 리명박역도가 그 무슨 《회고록》을 통해 북남비공개접촉과정을 외곡하며 감히 우리를 헐뜯는 추태를 부리였다.

리명박역도는 제놈의 떨거지들을 시켜 날조해낸 《회고록》이라는데서 북이 여러차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그 무슨 《대가》를 요구했지만 제놈이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고수하여 북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식으로 낯짝이 두텁게도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지어 개꿈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북과 정상회담을 왜 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알 때가 되였다.》느니, 《북이 보면 뜨끔할것이다.》느니 뭐니 하는 실로 앙천대소할 악담질로 내외여론을 우롱해나섰다.

이것은 앞뒤도 가려볼줄 모르는 천치의 몰골을 그대로 드러낸것으로서 지금 만사람의 경악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더우기 감히 북남수뇌상봉문제를 거들며 그 론의과정을 완전히 오도하여 흑백을 전도한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 일일이 까밝힐수도 있지만 굳이 한마디 한다면 리명박역도는 집권기간 통치위기가 격화될 때마다 그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특사파견》이니, 《정상회담》이니 하는것을 구걸해왔으며 그때마다 큰 선심이라도 쓸것처럼 놀아댔다.

이 모든 사실의 전모를 밝힐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

북남비공개접촉과정을 외곡하여 우리를 악랄하게 모독중상한 리명박역도의 이번 망동은 천하무례한 정치패륜아이며 너절한 시정배로서의 역도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금 남조선의 여야당은 물론 각계각층이 한결같이 리명박역도의 이번 추태를 《놀라운 일이고 있을수 없는 일》, 《남북대화에 고추가루를 뿌린것》,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처신》으로 신랄히 야유조소하며 규탄단죄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리명박역도가 거짓말투성이의 《회고록》을 출판하는 놀음을 급기야 벌려놓은것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하고 최근 고조되고있는 북남관계개선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며 제놈이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한 규탄여론의 초점을 딴데로 돌려보려는데 그 불순한 흉심이 있다.

우리는 검은것도 희다고 철면피하게 우겨대는 리명박역도와 같은 남조선의 무지막지한자들과 앞으로 민족의 중대사를 론의할수 있겠는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리명박역도는 《회고록》이 아니라 민족반역범죄를 반성하는 《죄행록》이나 쓰고 력사의 응당한 징벌을 받는것이 마땅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해볼것이다.

주체104(2015)년 2월 5일
평 양

치솟는 복수의 열기 하늘끝에 닿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천만군민의 분노의 목소리

조선의 총대맛을 톡톡히 보여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우리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은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슴끓이고있다.

미국놈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바마는 세살 난 아이보다도 못한 무능아이다.

미제호전광들이 아직 정신이 덜 든게 분명하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백악관에 주인으로 들어앉은 오바마는 전임자들의 숙명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철없이 놀아대고있다.

미국놈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려고 미쳐날뛰지만 어림도 없다. 조선의 총대는 절대로 자비를 모른다. 우리의 총대는 분노로 떨고있다.

미국은 우리 군인들이 무엇때문에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는 멸적의 구호를 들고 복수의 시각만을 고대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제호전광들과 말로 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

미국이 종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몸살이 나 하는것 같은데 덤벼만 들라.

우리는 억세게 틀어쥔 백두산총대로 침략자 미제를 지구상에서 씨도 없이 소멸하고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할 의지에 넘쳐있다. 죄많은 침략자, 도발자들과 끝까지 결산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다. 다종화되고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된 핵억제력과 세계가 아직 모르고있는 무서운 타격수단을 가지고있는 우리를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미국놈들이 우리의 신성한 령토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무자비한 타격으로 미국본토를 아예 재가루로 만들어버릴것이다. 그때에는 백악관도 펜타곤도 흔적도 남지 않고 없어질것이다.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김 성 일

개꿈을 꾸지 말라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를 부리는 오바마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하긴 우리와의 대결에 나섰던 력대 미집권자들치고 참패의 고배를 마시지 않은자가 없다. 지금껏 미국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얼마나 발광하였는가. 그러나 그 모든것이 허사로 되였다. 오바마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그 무슨 《인내전략》이라는 오물도 미국을 자멸의 나락에로 몰아넣고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

젊음에 넘쳐 세기를 주름잡아 폭풍쳐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이다. 미제가 그 누구를 붕괴시키겠다는것은 올가미로 반짝이는 별들을 잡아보겠다는것과 같은 철부지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하고 시대감각이 둔한 얼간망둥이인 오바마가 대통령노릇을 하는 미국이 가련하다.

압박과 제재앞에서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사상, 삶의 전부인 우리의 제도를 버리고 굴복할 조선인민이 아니다.

미친놈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미제가 우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우리는 그것을 천추만대에 쌓이고쌓인 원한을 속시원히 풀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로 여길것이다. 미친개들이 떠들어댄다고 해서 놀랄 우리가 아니다.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한다.

이 땅에 무서운 반미보복열기가 활화산처럼 타번지고있다. 선군으로 다져진 무자비한 보복철퇴가 이제 죄악의 총본산인 미국땅 한복판에 떨어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세계는 미제의 개꿈이 어떻게 깨여지고 악의 제국의 종국적멸망의 페지가 어떻게 씌여지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채취공업성 국장 정 건 우

속시원히 결산할 때가 되였다

상대도 되지 않는 미국놈들이 계속 우리와 맞서보겠다고 덤벼들고있는데 이제 더는 용서할수 없다.

오바마가 우리 공화국에 대해 감히 《시간이 흐르면 그런 정권은 무너질것》이라고까지 줴쳐댔다는데 너무도 격분스럽고 치가 떨려 내앞에 있으면 속시원히 상통을 후려치고 짓밟아 족치고 싶은 심정이다.

날강도 미제가 불구대천의 원쑤라는 말이 우리 나라에서는 전인민적이며 전군적인 공용어로 된지 오래다.

이제는 쌓이고쌓인 분노를 총폭발시킬 때가 왔다. 이 땅을 통채로 달구고있는 소탕하고 박멸하자, 죽음을 주자는 무서운 반미보복열기가 이제는 죄악의 총본산인 미국땅 한복판을 향해 폭풍쳐 번져가고있다.

대화와 설복, 충고나 경고로는 미국놈들을 깨우치지 못한다.

오직 총결산만이 남았다.

교훈이라는것을 찾을줄 모르고 저들의 무맥함을 깨닫지도 못하는 놈들에게서 구차한 변명이나 구걸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난 기간 미국놈들의 집요한 침략책동에 맞서 우리의 자위적힘을 백배천배로 다져왔다.

오늘날 미국놈들의 핵무기는 더는 만능이 아니며 악의 소굴 미국땅까지는 결코 먼것도 아니다.

다종화된 우리의 핵타격수단들은 미국을 곧바로 표준하고있으며 보복열기는 쇠물처럼 이글거리고있다. 인간세상의 불망종들이고 국제사회의 무뢰한들인 미국놈들을 살려둬야 또다시 우리의 존엄을 헐뜯으려 할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전쟁과 불행의 화근인 미국놈들을 박멸하고 그놈들의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영영 들어내고야말것이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직장장 고 광 준

단 평 철갑모쓴 난봉군들

지난해 윤일병타살사건으로 하여 부패성,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락인찍힌 괴뢰군부가 요즘에는 련속 터져나오는 성범죄사건들로 하여 또다시 골머리를 앓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CBS》방송은 륙군의 어느 한 려단 대령이 부하녀성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일삼다가 긴급체포된 사실을 전하였다. 이 부대의 한 소령도 다른 부하녀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썩을대로 썩은 남조선군의 진면모를 그대로 폭로해주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보다싶이 한개 려단을 통솔한다는자까지 체면이고 뭐고 다 줴버린채 망측스러운 성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으면 남조선언론들이 《군장성의 라태는 치명적수준》, 《사병들보다 장성들이 더 큰 문제》라고 개탄하였겠는가.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고 하였다. 고위장교라는자들이 전탕 난봉군이니 그아래 졸개들이 어찌 저저마다 성추행에 열을 올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결국 《성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괴이한 소동까지 벌려놓고 사병들의 문란행위를 막는다고 야단치던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참으로 난처하게 되였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것도 없다. 남조선군을 통채로 폭력의 란무장, 성범죄소굴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철갑모를 쓴 난봉군, 도덕적으로 썩어문드러지고 정신상태가 흐리멍텅한 이런 오합지졸의 무리를 믿고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남조선역적패당의 처지도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김 향 미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가 1월 31일 서울 종로구에서 모임을 가지고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주장하였다.

모임에서 단체는 《분렬 70년, 6.15선언 실천으로 해소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15공동선언이 리행되지 못하고있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리명박《정권》이후 남북사이에 학술분야는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교류가 차단되고 군사적충돌과 삐라살포 등으로 신뢰는 무너졌다고 비난하였다.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리행과 민족자주,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탄압이 계속된다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멀어질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분렬 70년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대결적인 《5.24조치》를 해제하고 즉시 북과의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진보활동가의 석방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황선 석방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월 29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보활동가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황선을 표적으로 삼고 탄압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당국이 《종북》소동, 《마녀사냥》을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황선을 석방시키기 위한 여러 형태의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해군기지 결사반대!》, 《깡패 물러가라!》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롱성투쟁을 강제진압한 파쑈적폭거에 격렬히 항의

남조선당국이 1월 31일 제주해군기지건설에 항의하는 롱성투쟁을 강제진압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을 벌려왔다.

그러나 남조선군당국은 이에 아랑곳없이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여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여러동의 해군숙소를 짓기 위한 공사에 진입하였다.

이것은 현지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군당국은 긴급정황이 발생할 경우 5분내에 해군기지에 도착해야 하는 주요지휘관과 고속정 탑승요원 등 작전필수대기요원 70여명과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숙소이기때문에 무조건 지어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공사를 강행하였다.

격분한 주민들과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여러 사회활동가들은 10월 25일부터 공사장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롱성에 돌입하였다.

천막롱성투쟁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그동안 투쟁참가자들에게 천막을 철거하고 롱성을 중지하라고 5차례에 걸쳐 위협을 가해오던 남조선군당국은 롱성투쟁이 시작된지 99일째 되는 이날 무자비한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해군과 경찰, 깡패들을 포함한 1 000여명의 폭압무력이 투입되였다.

강정마을회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천막앞에 설치한 8m높이의 망루에 올라가 쇠사슬로 온몸을 묶고 저항하였으며 다른 성원들은 바리케드에 의지하여 서로 팔을 끼고 맞서싸웠다.

폭력배들이 그들을 붙잡아 끌어내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진압에 미쳐날뛰였지만 그들은 무려 14시간동안이나 완강히 싸웠다.

《마을주민 기만하는 공사 중단하라!》, 《해군기지 결사반대!》, 《깡패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투쟁을 벌렸다.

이날 파쑈광들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하여 수많은 부상자가 나고 수십명이 경찰에 련행되였으며 천막이 강제철거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날 제주도 강정마을의 참상에 대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고 전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다.》느니, 《불가피한 조치》라느니 뭐니 하며 저들의 반인민적죄행을 정당화하려고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파쑈적탄압은 인민들의 생존권같은것은 아랑곳없이 동족대결정책을 추구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끝끝내 터뜨리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조선중앙통신】

ㄱ-51020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